

# 승리하는 교회

리처드 웹브란트,  
존 파이퍼,  
그리고  
밀턴 마틴의  
저술에 기초한  
3부작 연구



# 승리하는 교회

리처드 웬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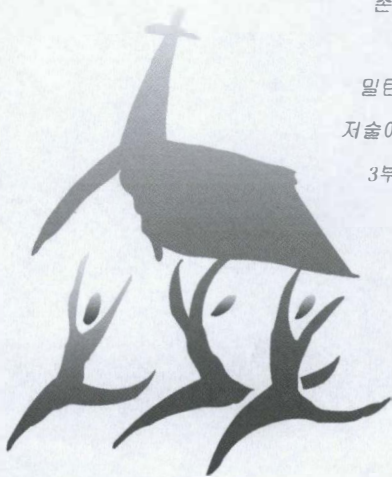
존 파이퍼,

그리고

밀턴 마틴의

저술에 기초한

3부작 연구



승리하는  
교회

# The Triumphant Church

## North Korean Edition

Copyright 2015 Voice Media

info@VM1.global

Web home: [www.VM1.global](http://www.VM1.global)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reviews and certain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or permission requests, email the publisher, addressed “Attention: Permission Coordinator,” at the address above.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and is for free distribution** only.

내용  
*Contents*

7

지하교회를 위한 준비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

55

고난: 기독교 쾌락주의의 희생

존 파이퍼

109

핍박의 개요: 연구와 발제를 위하여

밀턴 마틴

# 지하교회를 위한 준비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책은 소위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은밀한 기독교 사회의 어떤 조직을 위한 소책자 같은 책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한 사람의 시각이다. 목회자로서의 그의 삶과 감옥의 경험, 그리고 폭 넓은 설교사역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위협을 세상에 경고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리처드 웹브란트의 저술은 소개가 필요 없다. 그의 저술들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독자들로 하여금 그 전하는 메시지에 랭담하게 방치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본서의 원고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필요도 거의 없었다. 본서에 사용된 몇몇 표현들은 유태인으로서 생각하고 언어학자로서 읽으며 사도처럼 기도하고 선지자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들이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조만간에 두 가지 선택을 당면하게 될 것이다.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사회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정치, 종교적으로 통제된 성직제도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다. 이 점에서 웹브란트는 옳았다. 우

리는 이제 준비해야한다.

이러한 선택이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현실로부터 계속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훗날 우리 자녀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뚜렷한 모범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자.

- 발행인 -



## 지하교회를 위해 이제 준비하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지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행 9:13, 15-16)

내가 알기에 이 세상에는 지하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학교나 성경학교, 또는 대학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학교에서 사벨리우스주의(그리스도의 삼위일체설에 대한 신학자 사벨리우스의 이단적(異端的) 이론)나 아폴리나리우스주의(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the Council of Constantinople)에서 정죄된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us, 약 350년)와 그의 추종자들의 기독교론을 가리킨다.)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한 지 5분만 지나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을 결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콥트 교회(그리스도 단성설(單性說)을 신봉하는 교회로

알렉산드리아 총주교 관할인 이집트 그리스도교의 일파.) 나 온갖 종류의 작은 종파들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런 종파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결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3/1이 지하교회이며, 어떤 지하교회에 속하게 되리라고는 이전에 결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미국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온통 골몰할 때 공산주의자들은 15개의 나라를 잠식하였다. 이슬람과 인본주의는 갈수록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지하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영국의 어느 주교와 지하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한 시간 가량을 대화한 적이 있다. 대화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실례지만 당신은 저의 취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교회 건축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지하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고딕 양식을 사용하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주교가 누구인지 말해준다면 당신은 것처럼 명망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지하교회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다. 지하교회는 바로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동참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안 되어 있다. 모든 목사들은 이제 온 세상을 목회지로 품게 되었고 우리 또한 힘든 상황을 통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혹시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회교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되었

다.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 속에서 죽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지랑스러워 할 수는 없다. 더 바람직한 것은 어떻게 지하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지에 대해서 지도를 잘 받고 붙잡히지 않는 것일 것이다.

전쟁에서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적군으로 하여금 그들의 나라를 위해 죽게 하는 영웅들이 더 칭송을 받는다. 내 조국을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는 그의 조국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나는 일을 잘 수행할 줄 아는 나머지 붙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칭송한다. 우리는 지하교회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 고난을 위해 준비함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지하교회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짧은 시간에 지하교회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당신이 속회나 교단에 요청해서 지하교회에 대한 강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권하고 싶다.

포악한 정권이 장악한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잠비크와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곧바로 테러가 시작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예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종교적인 자유가 뒤따른다. 그렇게 시작된다. 어떤 정권은 진정한 힘이 없이 권력에 오르기도 한다. 그들은 경찰이나 군대를 제대로 조직하지도 않았다. 로씨야에서는 공산당들이 정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신교도에게 즉시 큰 자유를 허락하였다. 그들이 정교회를 무너 뜨리고 나자 그 다음 차례는 개신교회였다. 처음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그들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 목회자들의 약점을 발견하였다. 어떤 목사들은 야심에 차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은밀한 죄에 빠져 그것 때문에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 그 죄를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설명한다. 그 후에는 어느 시점부터 큰 핍박이 시작된다. 로무니아에서는 그러한 탄압이 하루 만에 발생했다. 모든 가톨릭 주교들이 수많은 사제, 수도사, 수녀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그 후에는 모든 교단의 개신교 목사들이 체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는 내 지하교회의 목회자, 내 지하교회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바울은 바로 지하교회의 목회자였다. 예수님은 이 지하교회 목사를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작하신 것이다. 주님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이겠노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셨다.

지하교회의 사역을 위한 준비는 고난학이나 순교학을 공부함으로써 시작된다. 솔체니친(Solzhenitsyn)은 그의 저서 ‘수용소 군도(Gulag Archipelago)’에서 구소련의 경찰관들은 체포학(arrestology) -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체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을 배운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체포학이라는 새로

운 학명을 생각해 내었다면 우리도 고난학(sufferology)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자.

나중에 우리는 지하교회 사역의 기술적인 면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지하교회에 대한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자유 국가에서는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믿고 침례(세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지하교회에서는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침례(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고난당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지하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경찰에 붙들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위한 준비야말로 지하교회 사역을 위한 준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성도는 감옥에 갇혀도 허둥대지 않는다. 일반 성도에게 감옥은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장소이다. 목사에게 감옥은 새로운 교구이다. 큰 수입이 있지는 않지만 사역을 위한 놀라운 기회들을 제공하는 구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책 '주님과 함께 한 독방 감금(With God In Solitary Confinement)'에서 약간 이야기하였다. 다른 책에서는 모스 부호(Morse code)(무선부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것 역시 지하교회를 위한 훈련의 일부이다. 당신도 일다시피 이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부호이다. 이 부호를 통해서 당신은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수감자들은 항상 바뀐다. 어떤 죄수들은 방에서 나가고 다른 죄수들이 들어온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

는 많은 성도들이 모스 부호를 통해서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어떤 성도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모스 부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나는 이런 감옥들 중에 몇 개의 교구를 가지고 있다.

자유세계에 있는 교구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종을 울리기도 한다. 누구나 원하면 교회에 오며 원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일요일에 전하는 당신의 설교가 맘에 들지 않으면 다음 주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는 날은 올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감옥이 교구인 사람은 교구 신자들과 하루 종일 지낸다. 자유세계의 교구 신자들은 시계를 쳐다보며 “벌써 30분이나 설교하고 있네. 도대체 언제 끝날까?” 라고 말한다. 그런 성도가 체포된다면 그 사람의 시계는 빼앗길 것이다. 당신은 일주일 내내 감옥에서 교구 신자들과 지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로무니아나 로씨야의 교회 역사상 감옥에서처럼 수많은 개심자들이 나타난 곳은 없다. 그러므로 감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새로운 과제라고 여기라. 내가 두 번째 체포되어 경찰에게 붙들려 떠나갈 때 안해가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리처드,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고 기록한 것을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고문은 어떠한가? 이런 고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그 고문들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50~60명 있는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배신하는 걸 박해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다면 고난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로무니아에서 2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가 어떤 너인과 죄를 범한 사건이 기억난다. 다른 목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그 논쟁은 이렇다. “그의 죄는 그날 밤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그 때는 그가 도저히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았던 그전 20년 동안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내 목회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성적인 죄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범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 진리에 관한 진리

우리 각자가 얼마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어떤 동기에 얼마나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 그 동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우리에게는 큰 놀라움이 있다.

반역자가 된 기독교 설교가나 저술가들이 있다. 로무니아의 최고의 찬송가 작곡자가 로무니아 공산당의 최고 찬미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말의 영역에 남아있는지의 여부, 또는 우리가 신적인 실재와 연합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성경은 이 진리에 관한 진리이다. 신학은 이 진리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진리이다. 좋은 설교란 이 진리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진리이다. 그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진리 주변에는 언어, 신학, 강해가 있다. 이런 것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을 주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는 설교를 관통하고 신학적인 책들을 관통하고 모든 “언어”들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실체와 연합해야 한다.

서방세계에서 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나홀 동안 밤낮으로 묶였는지를 증언하였다. 십자가들은 바닥에 놓여 쪼고 다른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묶인 성도들의 얼굴과 몸에 강제적으로 분노를 해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성경구절이 당신에게 도움과 힘을 주었습니까?” 나는 “어떤 성경구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 성경구절이 내게 힘을 주었거나 또는 저 성경구절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빈말이며 종교적인 위선이다. 성경구절만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짜라도...”

고난을 겪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당신을 위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당신을 위로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지, 주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시편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그 시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분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 12:9)라는 구절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족한 것은 이 구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다루는 목사들과 열정적인 전도자들은 거룩한 말씀에 실제보다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거룩한 말씀은 그 말씀에 의해서 표현되는 실재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주님이신 이 실재와 연합하게 되면 악한 세력은 당신에 대해 힘을 잃게 된다. 악은 결코 전능하신 주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소유한다면 당신은 매우 쉽게 넘어질 수 있다.

## 영적인 운동

지하교회 사역을 위한 준비는 깊은 영화(spiritualization)(靈化)이다. 마치 우리가 양파를 한 껍질씩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실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단순한 말들, 종교를 그냥 즐기는 감각적인 부분들을 “벗겨” 내야 한다. 예수

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세상의 방법을 보라. 도색잡지들이나 광고들이 우리의 상상을 자극한다. 우리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우리 앞에 영적인 실재들을 뚫으로써 상상을 자극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영적인 운동이 개신교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그 운동들을 지하교회에서 부흥시켜야 한다. 영적인 운동은 일부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오용되었는데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항상 시계추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 어떤 운동이 한쪽 극단으로 치달으면 또 다른 운동은 반대쪽 극단으로 치달는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영적 운동들을 오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운동을 아예 실행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로 하는 기도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묵상과 명상의 순간들도 역시 가져야 한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톱으로 겹을 당하거나, 기둥에 묶여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들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긴 목록을 읽을(read)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또한 시각화(視覺化)해야 한다. 이제 내가 사자들 앞에 있거나, 구타를 당하고 있거나, 화형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로무니아를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학교 성경공부를 기억한다.

주일 아침에 나는 10~15명의 소년소녀들을 데리고 교회가 아닌 동물원으로 데려갔다. 사자들이 있는 우리 앞에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이런 들짐승들 앞에 던져졌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비록 사자들 앞에 던져지는 않을지라도 사자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할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세요.” “네” 하며 대답하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죄수복을 입게 된다. 더 이상 좋은 가구나 좋은 카펫이나 좋은 커튼을 가질 수 없다. 안해를 더 이상 소유하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빼앗긴다. 당신의 서재도 더 이상은 당신의 것이 아니며 한 송이 꽃조차 볼 수 없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미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자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골로새서의 어느 구절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무식하고 광적인 어떤 가톨릭 신자들은 일종의 미신과 고행을 강요하였다. 개신교 신자들은 금육의 부분을 모두 버렸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금육, 즉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 이제 자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이러한 것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을 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 있다.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 당신은 미국의 백화점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곳에서 수많은 맛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물건이나 저 물건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 물건은 아주 좋아 보이지만 이것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저 물건도 마찬가지야.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백화점을 전부 구경하지만 1달러도 쓰지 않았다. 수많은 아름다운 물건들을 쳐다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내가 그것들 없이도 살 수 있음을 깨닫는 두 번째 즐거움은 더 크다.

우리 가운데는 자유주의적이고 현대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고문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내가 죽은 하나님과 문제가 많은 성경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만약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지 않았다면, 예언들이 성취된 후 수년 뒤에 기록된 것이라면,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에는 소련의 신문인 프라우다(Pravda)보다 더 많은 거짓말이 있다. 사실이 아닌 것, 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을 위해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 의심은 배신자를 낳는다.

나는 유대인이다.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셨고 첫 계시가 주어진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

심하는 것은 사람이 네 발로 걷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옳지 않다. 사람은 네 발로 걷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사람은 두 발로 걷는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다. 의심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에게 의심이 찾아오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들, 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 등과 같은 교리들에 대한 의심이 당신의 마음속에 등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라. 모든 신학적 또는 철학적인 의심은 당신을 잠재적인 배신자로 만든다. 당신이 연구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배블리 먹거나 책을 저술할 때는 의심을 품어도 좋다. 그러할 때는 온갖 종류의 생각과 의심들을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고문을 당할 때 당신이 믿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들은 배신으로 뒤바뀐다.

지하교회 사역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러한 의심의 해결이다. 수학에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어디에선가 실수를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 실수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풀어야 한다. 의심을 품은 채 살지 말고 그 해결을 추구하라.

## 고문의 시험

이제 고문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가 되었다. 고문은 때로 무척 고통스럽다. 고문자들은 시뻘겋게 단 쇠몽둥이를 사용한다. 때로는 단순한 구타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릴 때 매를 맞아보았다.

구타는 단순히 매 맞는 것이다. 단순한 구타는 견디기가 무척 쉽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어린이들처럼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의미도 있다.

어느 의사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차라리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들은 자꾸 전화를 걸어 나를 지하교회의 밀고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나를 때릴 거라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밀고자가 되든지, 아니면 창문으로 뛰어내려 죽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막대기를 하나 주어서 한 번 아프게 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구타를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타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를 구타하는 것으로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정교한 고문들을 사용했다. 이제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고문이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문은 당신을 더 강하게 하고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노라고 더욱 굳게 결심하게 만들 수 있다. 도둑들 중에도 공범자들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온갖 고문을 견뎌낸 자들도 있다. 그런 자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완고해진다. 고문은 반대로 당신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체코의 공산당 신문이 발행한 매우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다. 둠체크(Dubcek: 1921~1992,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가-역

자주) 치하에서는 약간의 완화기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체스코슬로벤스코에서 어떤 기사들은 발행이 가능했다. 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둠체크의 선임자였고 공산주의 독재자였던 노보트니(Novotny)는 공산당 지도자이자 자자기와 절친했던 친구를 체포하였는데 그 친구는 확고한 무신론자였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회원이었다.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우국지사들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 자기들끼리도 체포하여 고문한다.) 그들은 이 공산당 지도자를 붙잡아 독방에 감금하였다. 그리고는 사람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전자기파를 그 독방에 보내었다. 확장기에서는 이런 말이 밤낮으로 들렸다. “당신의 이름이 요셉인가, 요셉이 아닌가?” (그의 이름은 요셉이 아니었다.) “다시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요셉인가, 아니면 요셉이 아닌가? 미국에서 최악의 악당은 딜린저(Dillinger)이지만 당신은 딜린저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이다. 당신의 이름은? 요셉인가, 요셉이 아닌가? 당신은 반 혁명가이고 스파이다. 당신은 요셉인가, 요셉이 아닌가?”

그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한다. 밤낮으로 그는 정신이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한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다. “이제 내가 극도의 악을 경험하는구나. 공산당이 기독교도를 고문할 때는 나름대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고문하는 것이 극도의 악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문하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공산당이 다른 공산당을 고문하는 것은 고문 자체를 위한 고문에 불과

하다. 이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라.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모든 전깃줄에는 양극이 있는 법이다. 만약 극도의 악이 존재한다면, 이 극도의 악이 맞싸우는 대상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극도의 선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그들은 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맞싸우고 있는 것이다.”

심문자에게 불려갈 때 그는 웃으며 방에 들어가 그들에게 확성기가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는 꺼도 좋다고 말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소.” 관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 관리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몇몇 동무를 불러와서는 다시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지도자는 다른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방법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너무 지나쳤소.”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다. 마귀는 실수한다. 악한 고문은 오히려 영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 위기의 순간

고문에는 폭발의 순간이 있으며 고문하는 자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린다. 의심을 정복하고 신중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라. 지하교회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이름을 적거나 발설할 번하는 위기, 또는 은밀한 인쇄소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말할 번하는 위기는 항상 있다. 너무나 극심한 고문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제는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당신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강렬한 내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 그 중대한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하셨음을 느낀다. 오늘날 간수들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있음을 잘 알고 이에 맞게 잘 훈련을 받는다. 그 순간에 당신에게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고문하는 것을 중단한다. 고문을 지속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매일 글을 읽도록 교육을 받아 왔다. 그리고 나 역시 아들 미하이(Mihai)가 서너 살 때부터 성경의 한 페이지와 순교자나 성자들의 위인전을 한 페이지씩 읽도록 가르쳤다. 나는 폭스의 순교열전(Foxe's Book of Martyrs)을 읽었다. 이 책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라. 순교자들이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는지 가르쳐주라.

고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할 내용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리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 6:34) 나는 14년간 감옥에 있었다. 흐라포브(Hrapov)는 26년간, 왕명도(Wang Ming-Dao)는 28년간 옥살이를 했다.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견디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그 기간을 한꺼번에 지내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시간 시간을 지낼 뿐이다. 그 누구

라도 한 시간의 고통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우리는 어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치통이나 자동차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견딜 필요는 없다. 고통을 더 크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얻어맞고 고문을 당한 나머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또 얻어맞을 것이라는 생각 그 자체이다. 어쩌면 내일이 되면 내가 죽을지도, 또는 그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로무니아에서처럼 내일이 되면 기존의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어제 얻어맞은 것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고문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고문학(torturology)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처음에 겪는 고문은 끔찍한 충격이요, 끔찍한 고통이다. 하지만 계속 그렇지 않다. 민첸티(Mindszenty) 추기경은 29일 동안 밤낮으로 잠을 잘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고문이 끝나자 그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였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며칠 동안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며칠 동안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나면 당신은 아무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당신의 안해와 자녀들에 대해서, 당신 자신의 명예와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망각해 버린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제대로 숨 쉬는 것만이 남은 현실이 되어버리는 위기의 순간이다. 올바르게 숨 쉬는 연습을 하라.

숨 쉬는 기술은 힌두교나 불교의 요기수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호흡법에 대해서 읽어보라. 예수님은 제

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쉬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호흡은 성령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정교회에서는 침례(세례)할 때 사제와 대부모가 아기에게 세 차례 숨을 내신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내쉬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를 호흡했다. (한글 성경은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번역-역자주)고 기록한다. 예레미야서에는 “이웃의 안해를 따라 부르짖는”(neigh) 사람에게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간통자의 호흡을 말한다. 감정에 격해서 내쉬는 숨소리인 것이다. 조용히 고르고 깊게 숨을 내쉬면서 다른 사람과 논쟁을 시도해 보라. 논쟁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호흡은 고문을 견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배신은 교회 전체와의 결렬을 의미한다. 당신은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성도이다. 당신에게는 지하교회의 비밀들이 맡겨졌다. 그들을 배신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당신은 깊고 고르게 호흡하는 사람과 다투거나 소리를 지를 수 없다. 그렇게 호흡을 한다면 배신의 깊은 감정을 통과할 수도 없다. 고문을 당할 때는 배신자가 할 수 없는 호흡을 하라. 고르고 조용하며 깊숙하게 호흡하라. 산소를 공급하면 몸 전체에 저항력을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균형 잡힌 응답과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

지하교회의 사역자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철저하게 주지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은 이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거의 2천년 동안 채찍을 맞아온

몸에 속해 있다. 골고다에서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과 다른 수많은 박해자들로부터 채찍을 맞아왔다. 그 몸은 나치 치하에서 고문을 당했고 러시아에서는 7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 나는 회심한 이후에 내가 고난 받는 몸, 조롱을 당한 몸, 침 뱉음을 당한 몸, 가시면류관을 쓴 몸, 손과 발에 못이 박힌 몸의 일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았다. 나는 이것을 내가 장차 감당해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2천년 전에 십자가를 당하신 분으로만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 신비로운 몸에 당하신 고난은 이제 나를 위한 하나의 실재가 되어야 한다.

### 승고한 사랑

성경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가르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히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 10:37) 이 구절은 자유 국가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당신은 아마도 “순교자의 음성”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서 소련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수천 명이나 그 부모들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식구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당신의 자녀들은 살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부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녀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나디아 슬로보다(Nadia Sloboda)는 집을 떠나 4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자녀들은 붙잡혀 갔지만 그녀는 찬송을 부르며 집을 떠났다. 그녀가 집을 떠날 때 경찰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트럭에서 기다리는데 아이들은 찬송을 부르는 어머니에게 “저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저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만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그 앞에서 고난을 당하였다. 예수님의 모친도 아들의 고난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중요했기에 사람의 감정은 부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확고하게 지닐 때 비로써 지하교회의 사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고난을 당하신 비애의 사람,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한다. 공산국가의 박해자들 중에는 기독교도를 때리던 고무 곤봉을 내던지고 “당신의 머리 주위에 있는 이 후광은 뭘니까? 어찌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요? 더 이상은 당신을 때릴 수 없네요.” 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성경에도 스테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산당 박해자들이 수감자들에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가 당신을 고문하는 것처럼 상관들이 듣게 하세요. 나는 당신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경우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소리를 지르는 하지만 아무런 일도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는 수감자들이 정말로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죽는

사례들도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배신자가 되든지 선택해야 한다. 거울을 볼 때마다 배신자의 얼굴을 보는 수치를 느끼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자세로 생각하는 것은 지하교회 사역자, 특별히 지하교회의 목회자, 아니 더욱 중요하게는 지하교회 목사의 부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이다. 목사부인은 비범한 역할을 감당한다. 부인은 목사를 격려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용기를 북돋이주어야 한다. 부인이 목사에게 영회를 보자고 조르거나 인생의 쾌락을 요구한다면 그 목사는 지하교회의 투사가 될 수 없다. 부인은 목사가 사역에 전념하고 싸우며 자신을 희생하도록 강권해야 한다.

### 침묵하기를 배우라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한 가지는 침묵하는 것이다. 목사는 그 직업의 성격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목사는 하루 종일 말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다. 잘 들을 줄 모른다면 잘 설교할 수 없다. 나의 지나온 목회 러정을 돌아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보다 그들의 말에 경청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였다. 사람들은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안고 있지만 그들의 말을 인내하며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 심지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조차 그러한 인내심이 없다. 자녀들은 젊어서 어디론가 훌쩍 가고 싶어 한다. 당신의 말에 경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군가에게 경청해줄 사람만 있다면

말을 많이 안 해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지하교회에서는 침묵이 으뜸가는 원칙 중 하나이다. 당신이 발설하는 불필요한 말들 때문에 누군가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내 친구 중의 어느 유명한 기독교 작곡가는 “○○○형제가 작곡한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말하는 어느 성도의 습관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지만 그는 이것 때문에 15년간 수감되었던 것이다. 노래를 부르되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이름은 발설하지 말라.

나라가 침략당하는 그 순간에는 침묵하기를 배울 수 없다. 회심한 순간부터 침묵하기를 배워야 한다. 성도란 적지만 무게 있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말해야 하는 순간에 과연 그 말이 피해를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지하교회에서는 모든 불필요한 말들이 해를 가져올 수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은 인터뷰 중에 말하기를 그를 가장 박해하고 비난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전 부인이었다는 것이다. 전도서에는 마음의 비밀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지하교회가 생기게 될 것을 아셨고 어떤 순간에는 배우자조차 사소한 문제로 우리에게 분노할 것을 아셨다. 솔제니친의 비서는 공산당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은 끝에(그리고 그녀는 솔제니친의 안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결국 스스로 목을 매고 말았다. 만약 솔제니친이 침묵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다. 나는 독방에 감금되어 있던

시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3년 동안 30피트(10미터) 지하에 감금되어 있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책도 없었다. 외부의 소리는 스며들 틈이 없었다. 경비병들은 펠트를 바닥에 댄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부의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약물을 투여 받고 구타를 당했다. 나는 모든 신학을 망각해버렸다. 성경도 몽땅 잊어버렸다. 어느 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어지는 내용은 알지 못했다. 나는 계속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잊어버렸지만 당신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수 천 번씩 듣고 계시오니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문을 제게 들려 주시면 제가 잠잠하겠습니다.” 한 때 나의 기도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정신까지 망가뜨릴 약물을 투여 받은 까닭에 이 기도문조차 읊조리기 힘들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다. 일주일에 경우 빵 한 조각만을 먹었다. 구타와 고문은 계속 되었고 불빛은 칙칙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나는 결국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단하였다. 내가 아는 최상의 기도 형태는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의 조용한 고동이다. 예수님은 “두근두근” 하는 소리만을 들으셔야 했지만 그 심장의 고동이 그분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다.

독방에서 풀려나 다른 수감자들과 지내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왜 말하는지 의아해 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너무도 많은 말들이 무익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상대방 역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또한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가요?” 라고 말하고 상대방은 “네, 좋은 날씨군요.”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왜 날씨가 좋은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무익한 말은 어떤 나라에서는 형제의 투옥이나 죽음을 의미한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제에 대한 칭찬의 말 한마디가 큰 재난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왔는데 당신은 “오! 당신은 전에 여기에 안 계셨군요. W 형제는 방금 떠났는데요.” 라고 말한다. 그 방문객은 비밀경찰의 밀고자일 수도 있다. 이제 경찰은 W 형제가 그 마을에 온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제발 말을 조심하라. 침묵하는 법을 지금 배우라.

### 용납할 만한 전략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는 지하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알고 있다. 공산당원들은 성도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는 거리를 조사하였

다. 그곳 어디에선가 모이는 것이 분명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짐작하는 장소로 어느 소년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경찰은 그 소년을 붙잡고는 어디에 가느냐고 질문하였다. 소년은 슬픈 얼굴로 “내 큰 형이 죽어서 온 식구들이 모여 유서를 읽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은 그 말에 측은해져서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가라고 격려했다. 그 소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한 형제가 경찰에 붙들려가 취조를 받았다. “당신들은 아직도 모임을 갖고 있는가?” 그는 대답했다. “대장님, 기도모임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이 대답에 대장은 “옳지, 이 점에 동의하니 다행이군. 그만 가시오.” 라고 대답했다. 그 형제는 자기가 동의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모임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순교자의 음성”의 어느 수행원이 공산국가에 갔다. 그는 국경선에서 저지를 받고 “어떤 책들을 가지고 있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글과 여호와의 글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경찰관은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여호와가 영국의 어떤 위대한 시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그냥 지나가시오.” 라고 말했다. 이런 것들은 용납할 만한 전략들이다.

만약 천사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요정들처럼 존재한다면 나에게는 천사들이 필요 없다. 천사들은 하나의 실재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마귀들

도 있다. 우리는 천사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무신론적인 독재자에게 진리를 말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그 독재자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할 의무가 없다. 그러한 것을 묻는 것은 불손한 행동이다.

만약 내가 단순하게 “은행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불손한 질문이다. 그런 질문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 여자에게 “남자 친구가 있나요, 없나요? 벌써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는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 누구도 나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질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의 사적인 행동들과 뒤섞여 있다. 무신론 국가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권리가 없으며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의무도 없다.

심문을 받을 때 그들은 온갖 종류의 질문을 당신에게 던진다. 공산당원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기독교도이고 목사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 누가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인지 이제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모이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다른 도시들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만약 내가 진리를 드러낸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될 것이고 그들도 진리를 말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은 저지되어야 한다. 굴복하지 않는 결과가 몰매와 고문이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이를 감당해야 한다.

럭비(축구와 비슷한 운동)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얻어맞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지금까지 겪는 어느 목사를 나는 알고 있다. 그는 발에 문제가 생겨서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였다. 럭비를 위해서라면 그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으며 고통이 사라지면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다시 럭비 경기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체육이자 즐거움이며 몸에 유익한 럭비를 위해서도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제들이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한다.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하지만 죽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떤 거지가 부자 집 앞에 서서 “이곳에서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요? 잠잘 곳이 없어서요.” 라고 말했다. 부자는 “이 거지야, 여기서 떠나라. 여기는 호텔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은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가죠. 하지만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집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군요. 누가 이 집을 만들었나요?” 부자는 우쭐해져서 “이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소.” 라고 대답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의 할아버지 이후에는 누가 이 집에 살았나요?” “그야 우리 아버지가 사셨지.” “당신 아버지는 살아 계신가요?” “아니,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럼 지금은 누가 살고 있지요?” “내가 살고 있지.” “당신도 역시 죽게 되겠지요?” “그렇지.” “그러면 당신이 죽은 뒤에

는 누가 이 집에 살게 되나요?” “글세... 내 자식들이 살면 좋겠는데...” 그러자 거지는 이렇게 말했다. “왜 나에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당신은 이 집이 호텔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이 집이야말로 호텔이네요. 당신이 짐을 꾸린 후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당신이 죽을 존재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를 보편적인 인생관으로 받아들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면 굳이 고문자가 필요하지도 않다. 나는 고문자 없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문자는 결코 내 인생을 하루라도 단축할 수가 없다. 또한 최상의 별미를 자랑하는 식당이라도 내 생명을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때에 죽는 것이다.

## 배신의 다툼

지하교회에서는 아주 사소한 다툼마저도 용납되지 않는다. 지하교회의 모든 다툼은 체포, 몰매, 또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도청한다. 그들은 지하교회 내에 그들의 밀고자들을 두고 있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이에 맞서는 비난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는 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스미스 형제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잖소.” 그러면 경찰은 스미스를 붙잡는다.

다투다 보면 항상 이름을 거론하게 되고 사실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마땅히 주의 종

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딤후 2:24)

로무니아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는 두 회중 사이에 극한 다툼이 있었다. 한 쪽은 침례교도였고 다른 쪽은 배타적인 형제회였다. 둘 사이의 다툼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결국에는 양쪽 지도자들이 체포를 당하고 말았다.

오늘부터 성자가 되려고 힘쓰라. 천국에 가서 거룩해 지려고 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핍박을 받는 때일수록 다투지 않는 것이 좋다.

안타깝게도 위험한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 가급적이면 이런 다툼은 피해야 한다. 심지어 가정 내의 다툼도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나는 여자 친구를 둔 한 남자와 감옥에서 같은 방을 사용한 적이 있다. 젊을 때 종종 그런 일이 있듯이 그 남자도 처음 여자 친구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여자에게 비밀을 발설하였고 여자는 이를 비밀경찰에 밀고해버렸다. 그는 결국 일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다.

지하교회의 사역을 위한 준비는 정상적인 기독교 사역자가 되기 위한 준비에 기초가 되지만 훨씬 심오하고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교회 내의 두 목사들 또는 두 장로들 사이에 생긴 다툼 때문에 여러 회중들이 분열된 레들을 알고 있다. 이런 일은 어느 곳에서나 생기지만 억압된 나라에서는 투옥과 죽음을 의미한다.

## 세뇌에 대한 저항

고문의 가장 정교한 수단은 단순한 신체적인 고문이 아니라 세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세뇌를 저항하는지 알아야 한다. 세뇌는 자유세계에도 또한 존재한다.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이 우리를 세뇌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콜라를 먹어야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것이 콜라보다 분명히 낫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물을 마시라고 광고하지는 않는다. 만약 물을 광고한다면 우리는 물을 마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뇌 기술을 극단적으로 사용한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내가 있던 로무니아의 감옥에서 사용한 세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구부릴 수 없는 어떤 자세로 17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했고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하루 17시간씩 우리는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포기하라, 포기하라, “는 말만 들어야 했다. 1분만 들어도 지겨워지는데 하루 17시간씩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확인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신체적인 고문보다도 훨씬 견디기 힘든 고문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예견하셨다. 그분께서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모두 하나이며 동일하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아셨다. 공산주의자들은 세뇌(또는 세심 heartwashing)를 너무 늦게 고안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마 5:8).

그리스도를 위해 첫 순교자가 된 스테반 주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에 큰 돌을 들고 그에게 던질 기세였다. 그는 “내가 보노라.”고 말했다. 스테반의 안해는 아마도 그가 자신이 처한 위기를 보고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마도(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안 보이세요?” “오, 그렇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조그만 개미들이 저 아래에 보이는군.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나는 2년이 넘도록 세뇌를 당한 적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내 두뇌가 아직도 더럽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기독교는 죽었다.”고 말하는 동일한 박자에 맞추어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스도도 역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도 역시 돌아가셨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우리는 죽어서 주님께 올라간 성지들이 별들이 있는 하늘 어디엔가 존재한다고 보통 믿는다. 성경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히 12:1). 그들이 왜 별들 중에 앉아 있겠는가? 그들은 진정한 투사들과 고난 자들이 있는 바로 이곳에 있다. 성령의 세계에는 이곳과 저곳의 구분이 없다.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성령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감옥에 격리되어 있지만 그들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과거 모든 시대의 성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임재를 매우 강하게 느꼈다. 세뇌를 당하는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기독교가 죽었다고? 그들이 옳다고 쳐도 그게 무슨 상관이란?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기독교인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그녀를 위해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죽은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지.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 손가락 하나 들 수 없었고 기적을 베풀 수도 없었고, 위로의 말 한 마디도 할 수 없었어. 눈물 한 방울도 닦아줄 수 없었어. 예수님은 구세주였어. 당신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나에게 말하는가? 나는 그분이 마치 살아있다고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온 기독교가 죽었거나 믿음을 잃었다고 해도 그것이 내 믿음을 포기해야 할 동기가 되지 않아.”

우리는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히브리어에는 “의심하다”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다. 이런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없다. 히브리어에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단어가 무엇인지 아는가? 세계 기독교 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지

도자들은 종종 나를 비난한다. 그들은 나에게 대해 이렇게 정죄하였다. “웹브란트는 철의 장막 배후의 상황을 흑백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회색지대도 존재한다.” 나는 그들에게 만약 신약성경 전체에서 “회색”이라는 단어를 제시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대응했다. 신약성경에는 여러 색깔들이 등장하지만 혼합색인 “회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닌지, 옳든지 옳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이다. 희지 않으면 검은 뿐이다. 세상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없다. 우리는 마치 구구법이나 곱셈법을 줄줄 외우듯이 이러한 믿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내 가족이 살아있던지, 아니면 살해를 당했든지, 내가 풍족하든지, 아니면 굶주리고 있든지, 내가 자유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못매를 얻어맞든지, 아니면 사랑을 받든지, 수학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의 포옹에 두 번의 포옹을 더하면 네 번의 포옹이 되며, 두 번의 매에 두 번의 매를 더하면 네 번의 매가 된다.

진리의 확실성과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그러한 사랑 때문에 당신은 세뇌를 저항할 수 있다. 끝까지 저항하라.

나는 결코 영웅인척 하고 싶지 않다. 나 역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나 또한 결함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순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로서 존재한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에 나는 곁에 있는 어느 형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형제님,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네요. 더 이상 내 자신이 신자라고 여겨지지 않네요.” 그는 한결 같은 미소로 “전에 믿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분명히 믿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성경구절 하나를 기억하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과거형이지요. 당신이 과거에 믿었다면 당신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은 나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신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에는 신학을 실천하며 살지는 않았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 속에 살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고 그분이 과거에 베푸신 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순간에도 과거에 받은 축복을 기억하라.

## 고독을 극복하라

지하교회의 투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는가 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도 없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책도, 신문도, 연필도 없었다.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다. 벽을 쳐다보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신이 돌아버린다. 감옥 생활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으라.(미래의 지하교회 사역을 위해 읽을 가치가 높은 싸비용 같은 책들!) 그러면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감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 전부터 영적인련단의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당신은 성경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지낼 수 있는가? 라디오를 켜거나 음악을 듣지 않고도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있을 수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은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밤에는 결코 잠을 자지 못했다. 우리는 낮 시간에 잠을 잤다. 밤새도록 정신이 말짱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한 구절을 기억하는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외를 송축하라.”(시 134:1) 밤에 드리는 한 번의 기도는 낮에 드리는 열 번의 기도만큼 가치가 있다.

온갖 흉악한 범죄가 밤 동안에 발생한다. 도둑질, 술 취함, 흥청 거림, 간음 등이 모든 것은 밤에 일어나는 죄악 된 생활의 산물들이다. 낮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공장이나 학교에서 일을 해야 한다. 악한 세력들은 밤의 세력들이다. 그러므로 밤에 그런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밤에 깨어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유세계에서는 철야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내가 살던 나라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도 철야가 있었다. 내 아들 미하이는 3-4살 때 이미 철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우리는 밤새

도록 기도하곤 했다. 3-4살 된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잠시 함께 기도하다가 서로 발길질 하며 놀았다. 우리가 아이들을 꾸짖으면 다시 잠시 기도하다가는 책상 아래 누워 골아 떨어졌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철야를 경험하면서 자라났다.

독방에 있을 때에는 다른 수감자들이 침대에 들어갈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하루에 다 끝낼 수 없는 힘든 일들로 하루가 채워졌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온 세상을 려행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각 나리를 위해 기도하였고 훌륭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감옥에서조차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말해준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롬 12:15) 어딘가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행복해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나는 기쁘다. 어딘가에 한 소녀를 사랑하고 데이트하는 소년이 있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 공부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온 세상을 려행한 후에 나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지하교회의 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한 번은 침대 위에 있는 몇 개의 판자 위

에 누워서 기억을 더듬으며 누가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인지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 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눅 6:22, 23상)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기억했다.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떻게 것처럼 태만한 죄를 짓는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는 기뻐하는 것인데 이미 나는 그렇게 했다. 둘째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펄쩍 뛰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감옥에는 문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교도소장이 쳐다볼 수 있었다. 마침 그때 교도소장이 내가 펄쩍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실성했다고 믿었다. 감옥에서는 미친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함으로써 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두드려서 감옥 전체의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곧 교도관들이 들어와 나를 억누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곧 풀려날 거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조용히만 있어요. 아무 거라도 가져다주겠소.” 그는 큰 빵 덩어리를 가져왔다. 우리가 먹는 양은 일주일에 빵 한 조각인데 지금은 덩어리 전체에다가 치즈까지 있다. 흰색 치즈였다. 치즈는 결코 그냥 먹을 일이 아니다. 먼저 그 하얀색을 보며 경탄해야 한다. 쳐다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음식이다. 그는 또한 내게 설탕을 가져왔다. 그는 몇 마디 친절 한 말을 한 후에 문을 잠그고 가버렸다.

나는 “누가복음의 그 구절을 끝낸 후에 이것들을 먹어야지.” 라

고 중얼거렸다. 다시 누워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 ‘인자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였지. 그리고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라.” 나는 빵 덩어리와 치즈를 쳐다보았다. 놀랍게도 상이 정말로 위대했다.

그 다음 과제는 성경을 생각하고 이를 묵상하는 것이다. 매일 밤마다 나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설교문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후에는 이를 읽어보았다. 그 후에는 이것을 매우 짧은 운율에 맞추어 외우기 쉽게 만들었다. 나의 책 “주님과 함께한 독방 감금”과 “감옥의 벽이 말할 수 있다면”에는 이러한 설교들이 몇 개 담겨있다. 나는 350개의 설교들을 외우고 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나는 이 중에서 몇 편을 기록하였다. 약 50여 개의 설교들이 위의 두 권의 책에 소개되었다. 그 설교들은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전한 것들이다. 천사들은 날개가 있어서 그 생각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였다. (지금 이 설교들은 수많은 언어로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었다. 나는 책과 시들을 저술하였다. 내 안해와 자녀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매일 밤 나는 자신에게 농담을 하였는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낙관적인 농담들이 항상 새롭게 떠올랐다. 그 농담들은 내가 그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보여준다. 그 중 한 농담은 이렇다.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피터, 어떡하면 좋죠? 이치를 깔고 앉는 바람에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대답했다. “괜찮아. 당신의 진짜 이빨을 깔고 앉았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해보라구.” 나는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빵을 가지고 장기 말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 몇 개가 분필 때문에 하얗게 변했고 다른 것들은 회색으로 변했다. 나는 혼자 장기를 놀았다. 밥 피셔(Bob Fisher)가 세계 최고의 장기경기자라고 믿지 말라. 그는 지난 번 스페스키(Spassky)와의 경기에서 이겼다. 8게임을 이겼고 두 게임을 졌다. 하지만 나는 지난 3년 동안 한 게임도 지지 않았다. 나는 하얀색 말이건 회색 말이건 항상 이겼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난을 받는 지하교회 사역자에게 해당하는 비밀들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완전히 통락당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열심히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계속 경각심을 품고 생각해야 한다. 각자가 자기의 능력대로 여러 가지를 마음으로 창출해내야 한다.

## 참된 정체성

지하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나는 신약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게 되었다. 나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과거와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 사례들을 읽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많이 나타난다. (가장 좋은 예는 계 2:17이다)

-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요.” (행 1:23)

-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행 4:36)
- “니게르라 하는 시몬” (행 13:1).
- “바사바라 하는 유다” (행 15:22).
- “유스도라 하는 예수” (골 4:11).

왜 야고보와 요한은 “우뢰의 아들들”로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이처럼 이름이 바뀐 레들을 수없이 발견한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하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나에게도 많은 이름들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들은 절대로 웹브란트 형제가 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마을에서는 바실리(Vasile), 다른 마을에서는 조르제스쿠(Georghescu), 또 다른 마을에서는 루벤(Ruben)으로 부른다. 내가 체포되었을 때 나는 소위 누구누구라 불리는 리처드 웹브란트였다.

나는 성경의 언어적인 영감뿐만 아니라 문자적인 영감도 믿는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불필요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하였다. 기도할 때 당신은 어떤 곳에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왜 “한 곳에서”라는 구절이 필요할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든 동네가 다 “한 동네”인데 바로 이러한 표현이 지하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려행에서 돌아오면 안 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느 도시의 어느 곳에서 어떤 형제

를 만났소. 우리는 한 집에서 어떤 시각에 만나기로 결정했소.”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함께하고 싶으셨다.(눅 22:7-13) 예수님은 보통 때라면 “이러이러한 거리의 어떤 번지로 가서 아무개 씨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곳에서 저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신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당시는 주로 녀인들이 우물에 가기 때문에 남자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리했다. 기도회로 모일 때 우리는 누가 밀고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코 주소를 알리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말한다. “그냥 ‘저’ 길 모퉁이에서 계세요. 아니면 공원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푸른 넥타이나 다른 표시를 한 남자가 지나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이 뭐죠?”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가 비밀경찰의 밀고자인 것을 알게 된다.

지하교회는 신약성경의 책들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존재했다. 교회가 지하에서 사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우리는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우리를 정죄하면서도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게릴라들에게 돈을 제공한다. 성경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악을 심판하고 선을 장려하는 통치자라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는 권력은 스스로를 인간의 영역 밖에 두는 것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성경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어

편 정권도 성자들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는 나름의 법칙과 불의와 남용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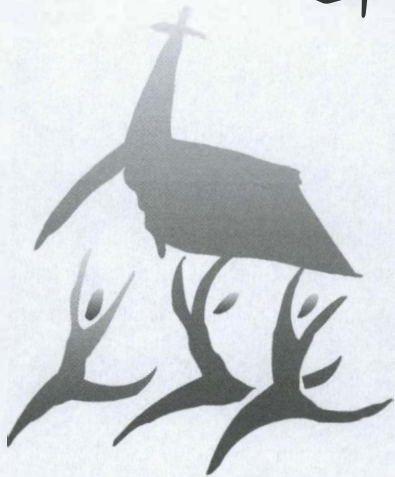
정부는 죄인들로 구성된다. 모든 권세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행한다. 중요한 것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봉오리가 꽃이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죄인이 성자가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는 한 나는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성인들이 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약간의 좋은 일들을 행하고 만약 가끔 잘못된 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2-3년 후에 이를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그들을 하나의 권세로서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나의 생명 그 자체를 취해 간다면 그것은 곧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나는 그 권세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의 사명은 공산주의 국가와 회교국가의 지하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다.

나는 지하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지하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고난 :

기독교 쾌락주의의  
희생



존 파이퍼

## 고난 받는 성도의 발아래 앉아서

리처드 웹브란트의 발밑에 있는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말 그대로 그의 발밑이었다. 미네이폴리스 남부에 위치한 그레이스 침례교회에서 그는 신발을 벗고 바닥보다 약간 높은 강단 위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가 로무니아 감옥에서 고문 중에 받은 발의 부상 때문이었다.) 그의 앞과 아래에는 열 두어 명의 목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는 거듭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셨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다.” 고난이 그냥 그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 10:18) 예수님은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할 것인지 물으신다.

웹브란트가 저술한 신앙 수필집인 *Reaching Toward the Heights*은 그를 이렇게 소개한다. 리처드 웹브란트는 로무니아에서 1909년에 출생한 유대인으로서 복음주의적인 루터교회의 목사이다. 1945년 공산당이 로무니아를 점령했을 때 그는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1948년에 웹브란트와 그의 안해 사비나가 체포되었으며 웹브란트는 레드 프리즌(Red Prisons)에 14년간 수감되었는데 이 중 3년 동안은 해와 별과 꽃을 보지 못한 채 지하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를 지키는 간수와 고문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마침내 노르웨이의 동료 성도들이 1964년에 1만 달러를 주고 그에게 자유를 취득해 주었다. <sup>1</sup>

##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인가?

그가 전해 준 한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어느 TV에서 이야기한 기독교 수도원장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뷰 진행자는 특별히 침묵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시토 수도회(Cistercian)에 관심을 모았다.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신론이 옳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지 말해 보세요.”

수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결, 침묵, 희생은 상금의 약속이 없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가벼운 관찰이 고난에 대한 나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수도원장의 응답을 듣고 받은 첫 번째 영향은 피상적이고 낭만적인 자기 자랑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개운치 않았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후에 나는 기독교의 위대한 고난 자였던 사도 바울을 보고는 그와 수도원장 사이의 현격한 차이에 놀라고 말았다.

인터뷰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수도원장의 대답과는 완전히 대조되었다. 진행자는 물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거짓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원장의 대답은 한 마디로 “어쨌든 그것은 선하고 고귀한 인생입니다”였다. 바울의 대답은 고린도전서 15:19에 나와 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것은 수도원

장의 대답과는 정반대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수도승과 견해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사랑과 수고와 희생과 고난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심지어 부활의 상급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왜 그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결국에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을까?

###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삶이 더 나아지는가?

이것은 교회, 특별히 미국과 서부유럽과 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기독교인이 되면 인생이 더 편안해진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최근에 나는 어느 프로미식축구팀의 쿼터백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경기에 임하면 기분이 좋아졌고 매 주일마다 경기에 출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8전 8승의 전적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것이었다.

부유한 서양의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부활이 없다 해도 편안한 생활을 가져오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기독교의 유익을 묘사한다. 모든 심리적인 유익과 관계적인 유익들을 생각해 보라.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이고 성경적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써 사랑, 희락,

화평을 얻는다면 그것이 거짓 위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삶이 아닌가? 왜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무엇이 잘못이었나? 그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나? 그는 왜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는가? 만약 미래에 별 문제가 없다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망상 속에서 당신의 70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불쌍해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그러한 망상이 공허와 무의미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망상 속에 빠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바울이 살았던 인생은 소위 번영과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온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초월하여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인생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그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교제에 대한 그의 소망은 심지어 부활 없이도 만족했을 만한 그런 편안한 인생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의 소망이 가져다 준 것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인생이었다.

그렇다! 바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알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기쁨이었다.(롬 12:12) 그리고 그 소망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부활과 고난당하는 자들의 부활을 떠나서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고난까지도 기꺼이 품을 수 있게 하였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희생적인 선택들은 그 자신의 고백처럼 그야말로 불쌍한 것이다.

그렇다! 바울의 고난 속에는 위대한 의미와 기쁨이 있었다. 하



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고난 저 너머에 기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3-4절의 핵심이다. “다만 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련단을, 련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기쁨이 있다. 하지만 기쁨이 있는 리유는 고난, 그 자체가 확고하게 하고 증가시키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소망이 없다면 바울이 이런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더 바보같은 일이다. 하지만 소망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덤 저편에 있는 소망을 보고 어리석게 보이는 고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리처드 웹브란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고난을 선택하였다.

### 갈등과 암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

잠시 우회하여 가도록 하자. 혹자는 지금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암과 같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는 자동차 사고로 내 자녀가 죽는 경우는? 혹은 심한 우울증? 이 책은 그런 경우에 관한 책임입니까?”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본서의 내용은 대부분 성도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기독교도임을 드러낼 때 겪는 고난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위험하다.

질병과 핍박의 가장 현격한 차이는 핍박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의도적으로 겪는 적대감이지만 질병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선택하는 것은 고난을 수용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벧전 4:19) 하지만 고난은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의도적인 적대감이 없을 때에라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다. 레를 들면 한 성도가 질병으로 가득한 마을에 가서 섬기다가 병을 얻을 수도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 겪는 고난이기만 그렇다고 “핍박”은 아니다. 타인의 적대심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고난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질병으로 가득한 마을에 가는 기독교인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럴 때 겪는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대가의 일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그 인생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암이든지 어떤 갈등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된” 고난이다. 즉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는 순종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 (고후 12:8)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천국을 향

한 순종의 길 가운데 겪는련단의 대가로 받아들인다.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성도가 순종하는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경험들은 그것이  
핍박으로 인한 것이든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든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  
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순종의 길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이 질병이든지 사탄이든지 죄이든지 아니  
면 순종 가운데 누리는 모든 믿음의 승리와 인내는 하나님의 선  
하심과 그리스도의 소중함에 대한 증거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겪는 온갖 종류  
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  
할 때 고난이 찾아오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의 령활  
을 통해서(히 4:15)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고난은 견딘다  
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고난이 주님의 선하심  
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고 입증해주며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사탄과 하나님의 계획**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난과 핍박의 고난은 이러한 공통점을  
갖는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계획하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신다.

핍박을 먼저 레로 들어보자. 데살로니가전서 3:4-5에서 바울은 핍박에 직면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그의 관심을 이렇게 묘사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이 구절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시련 속에 나타난 “유혹자”의 의도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는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지배하시며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권한을 사탄에게 제공하지 않으신다.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목적들은 사탄의 목적과 정반대이다. 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의 저자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스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 낙담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

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에 잊었도다. 일렸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잠 3:11-12).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죄인들의 거역한 일”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께 준 시험에서처럼(눅 22:3) 사탄이 주도하는 고난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고난 역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연단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사탄은 핍박으로 인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는 반면 하나님은 동일한 경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신다.

하지만 핍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질병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린도후서 12:7-10에는 사탄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모두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기에서는 바울의 신체적인 고난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고난의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사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파괴적인 시도를 억누르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스럽고 정결케 하는 목적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이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함 중에서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더욱 보여주신다.

### 핍박으로 인한 고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난은 구별이 가능한가?

핍박과 질병을 예리하게 구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핍박으로 인한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항상 구별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니아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한다음 수십 년 후에도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는 여전히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발에 통증을 겪고 있는 그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받은 고난들 가운데는 세 번 파선을 당하고 하루 밤낮을 물에서 지냈다고 기록한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난들을 당했다고 기록한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5, 27)

그런 모든 사역 때문에 그가 폐렴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폐렴은 “고난”이 되는 것인가? 바울은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이나 파선을 당하거나, 추위 속에 여행을 하는 것 등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연단의 “대가” 중 일부였다. 선교사의 자녀가 설사병에 걸리면 우리는 이것을 선교사가 신실하게 노력한 대가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부모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행하면 그 대가는 동일하다.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의도적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가 당면한 것이 질병에 의한 것이든지 원수들에 의한 것이든지 그것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 폭식이 부활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제 잠시 우회했던 데서 돌이켜 고린도전서 15:19에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그가 선택한 인생이 불쌍하다고 말한 그의 놀라운

선언으로 돌아가 보자.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의 인생이 전부라면 바울이 리해한 기독교는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 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전 15:32). 그는 단순한 쾌락주의나 무절제한 방탕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알코올과 과식을 즐겨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것은 결코 당신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정뱅이나 폭식가들도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바울이 “먹고 마시자.”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뜻한 바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평범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힘든 고난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로서 거부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바울은 결코 그가 한 것처럼 자기 몸을 혹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삿을 것처럼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9번의 매를 다섯 차례나 당하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 씩이나 태장을 맞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러 번 려행의 위협과 강의 위협이나 강도의 위협이나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폭도들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이나 춥고 험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배교하거나 위선적인 성도들을 것처럼 오래 참지도 않았을 것이다.(고후 11:23-29) 그 대신에 그는 단순하게 로마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존경 받는 유대인으로서 편안하고 쉬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바울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먹고 마시자.” 고 말했을 때 “우리 모두 호색자들이 되자.”는 뜻이 아니었다. 바울이 뜻한 바는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나 지옥, 또는 죄나 거룩이나 하나님 등, 골치 아픈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이고 단순하고, 편안하고, 평범한 인생의 즐거움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속에서 나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추구하는 듯하고 이것을 기독교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자신의 육신적인 편안함과 이생에서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아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고난, 즉 무신론을 “의미 있게,” 또는 “아름답게” 또는 “멋지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의 고난을 선택 하라는 부르심이었다. 그것은 만약 그리스도의 기쁜 임재로 들어가는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고난이었다.

### 서양 기독교의 믿기 힘든 고발

이것은 시토 수도회의 수도원장에 관한 웹브란트 목사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놀라운 사실이다. 바울의 현격히 다른 견해에서 나는 서양 기독교의 거의 믿기 힘든 고발을 보았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것일까? 당신 스스로 판

단하길 바란다. 다음처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을 당신은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삶은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너무나 충격적인 질문이다.

### 기독교를 선택한 고난의 인생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바울이 살아온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가 선택한 희생의 인생으로서 그로 인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빌 3:7-11)

내가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희생과 손실, 고난의 삶을 향한 부르심인데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29-31)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언”하였다. 그는 “때마다 위험을 무릅썼고” “날마다 죽었다” 바로 이 리유 때문에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가 불쌍히 여겨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실제로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하였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 왜? 그는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인간이란 고통을 피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옮긴다. 우리는 온화한 기후를 선택한다. 우리는 냉난방 장치를 구입한다. 아스피린을 먹는다. 비가 내리면 실내로 들어간다. 어두운 길을 피한다. 우리가 먹는 물을 좋은 것으로 한다. 우리를 “때마다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인생 길은 정상인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 바울의 인생은 사람들의 평범한 선택들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게 받게” 하였으며(고후 1:5)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게”(고전 4:10) 만들었을까? 그는 왜 자신을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

으며 정처가 없고,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드러내도록 만드는 선택을 했을까?(고전 4:11-13)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쩌면 그것은 사도행전 9:15-16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후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 이 사람(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고난은 단순히 바울의 사도적인 부르심의 일부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던 많은 고난까지도 품어야 했던 것이다.

“주셨다”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다. 그리유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믿음의 하나의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하나의 선물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echaristhe = 값없이 주다.)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 1:29) 하지만 이것은 사도권의 일부로서 그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바울이 사도들에게만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빌립보의 성도들과 온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른 사람들 역시 고난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선물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감옥에서 겪은 온갖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나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감옥의 썩은 지푸라기 위에 누웠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속에서 처음으로 선한 감동을 느꼈다. 점차적으로 내게 분명해진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이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계층을 통해서도 아니요, 정당들을 통해서도 아니요,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사실이었다. 감옥이여!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주어 그대를 축복하노라.”<sup>2</sup>

솔제니친은 고난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의 선물이라는 점, 또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사도 바울과 의견을 같이 한다.

### 그가 단지 한 명의 성도임을 보여주기 위한 고난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바울은 고난이 그가 단지 한 명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의 고난을 수용했던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 9:23-24)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날마다” 죽는 것이 없다면 참된 기

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말과 매우 유사하다. (고전 15:31)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다.” (요 15:20) 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만약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일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어떤 심상치 않은 이미지를 주셨다.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눅 10:3)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눅 21:16; 마 24:9)

바울이 이런 약속들을 그의 교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때 그가 이 고난의 약속들을 단지 처음 열두 제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레를 들면 그는 자신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행 14:22) 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살전 3:3) 고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또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주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그것을 자신만의 특별한 것으로 다루지 않았고 교회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4:16)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고난이 그가 성도임을 확증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의 인생을 기꺼이 수용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나를 핍박했다면 그들은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 성도들에게 자기의존의 젖을 떼게 하라.

바울은 고난이 신실한 성도의 삶의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자신이 겪은 고난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깊게 묵상하게 하였다. 레를 들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존의 젖을 떼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시아에서 고난을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 1:8-9) 이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큰 만족이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더 적은 만족이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인생의 깊은 교훈은 쉽고 편안한 시기를 통해서 배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매우 성숙

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은 고난을 통해서 왔다.” 고 말하는 것은 들어보았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자신이 고난의 지하실에 던져졌을 때 위대하신 왕께서 항상 그 곳에 그분의 포도주를 두셨음을 기억했다고 말했다. 찰스 스펀전은 고난의 바다에 뛰어드는 자들은 희귀한 진주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말했다.

### 그리스도를 최상의 만족으로 여기라.

최상급의 진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재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기뻐하도록 도우신다면 주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 만약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굳게 의지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보다 더욱 그분을 사모함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는 사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 이니라.”(고후 12:9-10)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에게서 떠나 은혜로 나



아가도록 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강조하고 빛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또한 믿음이 하는 일이기도 하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깊은 것들이 고난 속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8) 위의 구절이 기록된 같은 책에는 예수님이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히 4:15) 그러므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순종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졌음을 뜻한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행복의 경험을 의미한다.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도의 고난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했을 때 바울은 감동을 받아 그분을 따르 고자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나는 바울의 고백에 다시금 놀라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의 관계를 묘사할 때 바울은 형언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고난의 삶을 선택한 가장 강력한 동기였을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갈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바울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충만하고 대속적인 가치를 감히 과소평가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친히 “다 이루었다.”(요 19:30)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히 10:14)는 말씀은 참되지 않은가? 그리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히 9:12) 것이 아닌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정의를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기초임을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5:9)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택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고 가르쳤다. 이 고난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충분한 기초였다.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대속적인 가치를 채운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이보다 더 훌륭한 해석이 있다. 바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을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무언가를 첨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결핍된 것은 그분이 받으신 고난이 가치가 부족해서 마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충분히 덮어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진 무한한 가치를 세상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난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비밀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은 열방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함으로써 그것을 채워야 한다.

### 에바브로디도가 열쇠

이 해석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은 빌립보서 2:30에 사용된 유사한 단어들이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교회가 바울을 위한 지원(아마도 돈이나 생필품이나 책)을 모았을 때 에바브로디도 인편으로 이를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고자 결정하였다. 물건을 가지고 떠난 이 여행에서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하였다. 그는 죽을 정도로 아팠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다.(벧 2:27)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돌아 가면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면서(29절) 골로새서 1:24과 매우 유사한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말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골 1:24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단어) 채우려(골 1:24에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 함 이니라.” 헬라이어 원문에서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운다.”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문구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 대한 빌립보인들의 섬김이 부족하였으며 어떤 의미에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부족한 섬김을 “채워” 주었는가? 100년 전의 성경 주석가인 마빈 빈센트는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하였다.

“바울을 위한 선물은 한 몸 된 교회의 선물이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의 헌금이었다. 부족했던 것, 그리고 바울과 교회 모두가 고맙게 느꼈을 만한 일은 이 헌금을 교회가 한 개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그의 애정이 깊고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족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sup>3</sup>

나는 이것이야말로 골로새서 1:24의 동일한 단어들이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

시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준비하셨다. 이것은 완전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은 바로 열방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개인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된다. 우리는 그 고난이 의도했던 목표, 즉 자신들의 무한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목표를 완수하게 된다.

### 고난으로 고난을 채우라.

하지만 골로새서 1:24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부족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채우는가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은 그 자신의 고난이라고 말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이 그가 전도하려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그의 고난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결론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분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고난의 일부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생명의 길로 선포할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 자국을 보고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우리의 소명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소개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람들에게 참되게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그분은 그의 몸 된 교회가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분의 고난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이다. 로무니아 목사인 요셉 티손(Joseph Tson)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이다. 내가 로무니아에서 몰매를 맞을 때 그분은 내 몸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셨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영광이었다.”<sup>4</sup>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이시는 사랑을 증거 해 준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리유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몸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상처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볼 수 있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7)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가진다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그를 보는 사람들 안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  
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력사하  
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후 4:10-12)

### “순교자의 피는 씨앗이다.”

기독교의 팽창 역사는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다.”는 사실을 입  
증하였다. 이 씨앗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서 온 세상  
에 전파된다.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는 순교자의 흘린 피로 축  
축히 젖은 땅에서 자라왔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스티븐 닐  
(Stephen Neil)은 초대교회의 고난이 그 교회로 하여금 그토록 급  
성장하게 한 여섯 가지 리유들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성도들은 법과 맞서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은밀하게 모일 수밖에  
없다. 모든 성도들은 조만 간에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자신의 신  
앙을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핍박이 발생하면 순교  
는 가장 공개적으로 수행된다. 로마인들은 가혹하고 잔인했지만  
동정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태도, 특별히  
남자들과 함께 핍박을 당한 젊은 여자들의 경우는 깊은 인상을 끼  
쳤다. 초기의 기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차분하고 위엄 있고  
품위 있는 행동이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원  
쭈들에 대해서 자상했으며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방  
법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하는 바

로 그 순간에 회심을 체험한 이방인들의 사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sup>5</sup>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어찌 내가 부인할 수 있으리요.”**

고난을 통한 강력한 증언을 보여주는 한 레는 서머나의 감독으로서 주후 155년에 죽은 폴리갑(Polycarp)의 순교였다. 그의 제자인 이레네우스(Irenaeus)는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죽을 때 매우 나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총독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주님을 86년 동안 섬겼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sup>6</sup>

핍박이 심했던 한 때에 서머나의 흥분한 군중들이 폴리갑을 찾으려고 수색령장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도시 밖의 어느 마을로 옮겼는데 죽기 3일 전에 한 꿈을 꾸고는 “나는 산채로 화형을 당해야 해.” 라고 결론을 내렸다. 군중들이 그를 수색하고 있을 때 그는 도망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의 순교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그는 내려가서 그들과 말하였는데 사람들은 그의 나이와 절개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것처럼 연로한 사람을 체포하려고 너무 아단법석을 떨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는 그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실 음식을 내어 오도록



했다. 그는 자유롭게 한 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은 이를 허락하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서 기도하였는데 2시간 동안 자신의 평안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것처럼 경건한 노인을 잡으러 온 것을 느꼈다.<sup>7</sup>

마침내 그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자 군중은 그의 손을 기둥에 못 박으려고 하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발 나를 그냥 이대로 두세요. 나로 하여금 불을 견디도록 하신 분이 내 손에 못을 박을 필요도 없이 장작불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게 도우실 겁니다.”<sup>8</sup> 그의 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보이지 않자 화형을 집행하던 자가 그의 몸에 단도를 찔렀다. 고대의 기록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성도들 사이의 엄청난 차이에 놀랐다.”<sup>9</sup> 대체적으로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승리를 설명한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였다. 고난은 단지 그들의 증언에 수반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증언의 절정이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사탄]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교회가 고난과 순교에 의해서 확장되고 견고해 지는 것은 역사의 요행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

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세상에서 완성하려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된다. 그 배경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오, 주님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며 부르짖는 천국의 비전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언제 완성될 것이며 당신의 구원과 심판의 목적이 언제 성취될 것 입니까.’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 일부를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이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 6:11)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수의 순교자들을 지정하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다.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끝이 올 것이다. 조지 오티스(George Otis)는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 2차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우리가 회교국가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순교자들의 부재에 있는가? 은밀하게 모이는 교회가 힘을 기를 수 있는가? 젊은 교회에 순교자 모델이 필요한가?” 등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책, “마지막 거인”을 “위협스러운 안전”이란 제목의 장으로 적절하게 결론 내렸다.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교회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전멸될 것을 피하기 위해 과연 숨어 지내야 하는가? 아니면 만연해 있는 영적인 무지와 고갈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순교자들이 속출한다 해도) 선교적인 돌파구를 가져다주겠는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혁명이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가 무슬림들 사이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순교자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무슬림들이 숨어있는 교회가 전하는 내용들을 과연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문제는 때때로 예배와 전도를 은밀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숨어 있음으로써 “우리의 빛을 말 아래에 두는” 잘못을 범하느냐이다. 역사의 기록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에베소,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은 그들의 전도 때문에 물매를 맞거나 돌에 맞거나 음모에 휘말리거나 감옥에 갇혔다. 초청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것이 선교의 기초가 된 적도 결코 없었다.”<sup>10</sup>

오티스는 분명히 그레고리 대제(590년부터 604년까지의 교황)의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할 것이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신실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피어난다.”<sup>11</sup>

### 우리의 상처에서 분수처럼 흘러나오는 피

골로새서 1:24의 목적, 즉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줌으로써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사례들은 우리 시대에도 수없이 많다.<sup>12</sup>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던 1995년 말

에 그러한 고난을 설명한 어느 선교사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곧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에게 전자 편지를 보내 그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나는 문제의 주인공인 단사(Dansa)와 개인적으로 대화하였고 아래와 같은 그의 이야기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그의 허락도 받았다.

1980년경에는 내가 살던 올레이타(Wolayta) 지역에 공산정부의 지방 관리들로부터 혹독한 핍박이 있었다. 그때 나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청소년 단체의 기독교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다. 공산당 간부들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청소년들에게 혁명의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의 집요한 강요에 못 이겨 다른 많은 성도들이 수긍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가왔다. 나를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투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두 번의 투옥은 비교적 짧았다. 하지만 세 번째 투옥은 1년이나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공산당 간부들은 함께 투옥되어 있던 우리 9명의 성도들(6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들 중 한 명은 후에 나의 안해가 되었다.)을 세뇌하려고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간부들 중 한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우리는 물매를 맞았고 먼 곳에서 강제로 물을 길러 왔으며 농토를 치우기 위해 무거운 돌을 운반해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두 주간의 기간은 간수들이 아침 일찍 우리를 깨워

서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시간에 억지로 우리를 걷게 했다. 그것도 무릎으로 도시의 자갈길을 1.5킬로미터나 걷게 했던 때였다. 그렇게 걷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첫 날이 지나자 우리의 상처에서 피가 분수처럼 흘러나왔지만 우리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또 다른 경우는 매우 모질고 잔인한 간수 한 명이 우리를 직렬하는 태양빛 아래에 6시간 동안 등을 밑으로 하고 눕게 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 끝난 다음 나는 “당신은 태양빛이 우리를 내리치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내리치실 거요” 라고 말했다. 그런 일이 있던 지 얼마 후, 그 간수는 중한 당뇨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몇 년 뒤에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을 때 최고 간부가 우리를 감옥에 불러 설교하도록 초대하였다. 그때 살인죄로 수감되어 있던 12명의 죄수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도소 사역을 담당하였고 이제는 그곳에 170명의 성도들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수감자들과 간수들 중에서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게 하실 수 있다. 하지만 단사의 고난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 한 놀라운 일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스도와 구원을 위하여 고문을 당하다.**

요셉 티손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리

스도를 위한 고난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였다. 그는 로무니아의 오라다(Oradea) 제2침례교회의 목사였는데 1981년에 정부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다. 나는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속죄(propitiation)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전도(propagation)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1:24을 해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골로새서 1:24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10도 고난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 이로라.” 요셉 티손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 부유하고 평화로운 도시 안디옥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엄청난 축복이 가득한 이 놀라운 교회에 목사로 남아 있었다면 소아시아나 유럽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나는 몽둥이로 맞고, 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세상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당하고, 산송장이 되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처럼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면서 행동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부유한 교회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sup>13</sup>

그는 성도들의 고난 그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 전도의 기회들을 제공하는지 잘 설명한다.

내가 침례를 베풀었던 어느 고위간부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 하였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죠? 그들은 3-4천 명을 소집해서 나를 폭로하고 조롱 할텐데. 그들은 내가 스스로 변호하도록 5분의 시간을 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제님,” 나는 말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이야말로 당신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지금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얼굴에 광채를 띠며 “요셉 형제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다. 너무 잘 감당한 나머지 그는 나중에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요셉 형제님,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 항상 누군가가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나를 골목으로 데려가 주위에 누가 있는지 살펴 보고는 나에게 귓속말로 ‘당신의 교회 주소를 알려주세요.’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해 주세요.’ 또는 ‘제게 성경을 한 권 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sup>14</sup>

**열방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라.**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했듯이 만약 그리스도가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소망하지 않은 채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그런 삶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고난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뒤따르는 부수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제공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전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

이 말의 놀라운 의미는 나라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은 성도들이 고난을 선택하기 전에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고난의 한쪽 끝에는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계 6:11) 순교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계선교의 마지막 전방을 결코 건널 수가 없다. 그 끝이 오기까지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쾌락주의가 아닌가?

나는 다른 곳에서 데이빗 리빙스턴이 자신의 선교사 사역의 고난을 “희생”이 아니라고 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글의 제목을 “고난, 기독교 쾌락주의의 희생”이라고 붙였다. 이것은 리빙스턴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그가 고난이 희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축복이 손실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내가 고난을 희생이라고 말할 때 내가 뜻한 것은 손실, 그것도 아주 큰 손실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내가 리빙스턴에 동의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면 내가 축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또한 알 것이다.

하지만 나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마치 아무런 희생도 없는 것처럼 말하기에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손실 또한 너무나 크다. 우리는 단어의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것은 기독교 쾌락주의이다. 신약 성경 전체가 고난을 기독교 쾌락주의의 문맥에서 다루고 있다.

바울이 고난을 택하였을 때 갇고 영구적인 기쁨을 추구했을까? 그 고난이 너무나 큰 나머지 만약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불쌍했을 것이다. 이 질문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만약 바울이 선택한 고난의 삶을 불쌍한 것이 아니라 칭찬 받을 만한 것, 그리고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오직 부활뿐이라면 그 부활에 대한 그의 소망과 추구야말로 고난 중에도 그를 지탱하고 견고케 한 것이다.

실제로 그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특권들을 손실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하노니.”(빌 3:10-11) 그의 목표는 그렇게 살고 또한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써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림

왜 그럴까?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온전하고 육체적이고 영원한 교제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이 품었던 소망의 핵심이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빌 3:8)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위대한 열정이었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의 목표였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인생과 고난의 목표였다.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았다.”고 말한다.(빌 1:23) “더욱 좋았다”는 것은 이타적인 동기가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 쾌락주의자의 동기이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가장 깊고 영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즉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자라면 그분에게 홀로 나아가는 것

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절정은 이것이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비의 절정이라면 그것을 무한한 유익으로 여기는 자들은 결코 사사로운 즐거움을 위해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오른 편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공적인 즐거움, 공유된 즐거움, 공동체적인 즐거움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바울이 말했을 때 그의 손실은 모두 자기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빌 2:17) 고난 가운데 자기의 생명까지 쏟아 붓는 것은 분명히 그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열방의 믿음을 얻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

이런 리유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빌 4:1)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19-2) 교회는 그의 기쁨이었다. 그 리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그리스

도 안에 있는 바울의 기쁨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희심자들이 늘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자비가 더욱 높임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고난을 택했고 그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구원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누리게 될 그의 기쁨 역시 영원히 클 것임을 의미한 것이다.

비록 바울이 그의 교회를 향해 품었던 열정적인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랭소적인 태도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내 인생의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 공부를 시작했던 그 시절을 회상한다. 1968년 봄 어느 주일 아침에 파사데나의 거리를 걸으면서 마치 물의 가치를 의심하는 물고기처럼 또는 공기와 바람이 존재하는 리유를 의심하는 새처럼 교회를 위해서 어떤 미래가 존재하는지 궁금해했던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를 그러한 우둔함에서 건지셨고 3년 동안 레이크 에비뉴 교회(Lake Avenue Church)의 성도들과 함께 지내게 하셨으며 담임 목사님이셨던 레이 오르룬드(Ray Ortlund) 목사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다. 그분이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실 때 나는 바울의 영이 그에게서 넘쳐흐르는 것을 보았다.

10년 후에 내게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1979년 10월 어느 늦은 밤에 나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그 때 나의 고민은 벤엘 대학에 교수로 남아서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

면 학교를 사임하고 목회지를 찾아야 할 것인가였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 중 하나는 나에게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매주 서로 만나서 서로 섬기며 성장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 간다. 가르치는 일도 나름대로 즐겁다. 그것 역시 위대한 부르심이다. 하지만 그 날 밤 또 다른 열정이 나를 휩싸였고 하나님은 그 후 몇 개월에 걸쳐서 나를 베들레헴 침례교회로 인도하셨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15년째이다. 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그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열정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오해하지 않는 한 그들 역시 내가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벨 1:25)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글을 쓰고 설교하는 목적이다. 수백 가지의 평범한 일에서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얻게 된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고 베들레헴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이중적인 말이 아니다.

### 만약 고난 중의 기쁨이 자랑할 만하면 그것을 추구하라.

바울이 골로새서 1:24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한 것은 비록 자연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개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고난을 채운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기독교 쾌락주의는 단순히 바울이 하는 일이 선하고 자랑할 만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심오하고 영적인 일을 마치 하찮거나 우연적이거나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다루는 것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다. 나는 이 말을 신중하게 한다. 성령께서 친히 것처럼 위대한 일을 하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드높이실 때 “타인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허용할 만한 일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추구하지는 말라.”고 말하는 것 역시 신성모독에 가깝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적은 단지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6-7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라. 첫째, 환난 중의 기쁨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둘째,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다. 그러한 것이 단지 좋은 은사일 뿐이지 좋은 목표는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크니라.**

기독교 쾌락주의는 성도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한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찬만하시고 만족시키시는 은혜의 한 표현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을 마태복음 5:11-12에서 표현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눅 6:22-23 참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장차 부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위대한 상급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집중의 결과로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은 장차 임할 것에 비교할 때 보잘것없게 보일 것이다. “생각전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고후 4:16-18 참조) 우리의 받을 상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제 4장에서 보았듯이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눅 6:35) 가난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눅 14:14)

**고난 중에 기뻐하라. 더욱 깊은 확신을 갖게 되리라.**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확신으로 인해 고난 받을 때 나타난다. 환난 중의 기쁨은 부활의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의 경험은 또한 그 소망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한다. 레를 들어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의 기쁨은 단순히 그의 받을 위대한 상급에만 기초를 두지 않고 그 고난이 상급에 대한 그의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결과에도 기초를 둔다. 환난은 인내를 결실하고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실재적이고 참되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한다.

리처드 웹브란트는 그리스도를 위해 견디기 힘든 고문의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묘사한다.

너무나 극심한 고문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당신이 바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강렬한 내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 그 중대한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하셨음을 느낀다.<sup>15</sup>

“강렬한 기쁨”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견뎌내었다는 느낌에서 온다. 당신은 불의 환란도 견뎠고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 당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속



에 참되신 분이시다. 그분은 그 약속하신 바대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5:41에 따르면 사도들은 몰매를 맞은 후에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보인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참되게 여기시고 불같은 환난을 통과할 준비가 된 것으로 여기셨다는 생각에서 기쁨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을 기뻐하라. 영광으로 인도하리라.**

고난 중에 기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기쁨 그 자체야말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진리에 의해서 빛이 난다. 환난 중의 기쁨은 1) 우리의 받을 상급에 초점을 둬으로써, 2) 고난이 우리의 신실함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결과로부터, 3) 환난 중에 기뻐할 때 장차 영원한 기쁨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으로부터 온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3)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릴 최종적인 기쁨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 고난 중의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부르고 있다.(명령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네 번째 길은 우리가 이미 살펴 보았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볼 가운데도 우뚝 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굳게 설 것이라는 깨달음으로부터 온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살전 3:8-9) 이것은 골로새서 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기록한 바로 그 기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는 믿음 안에 굳게 선 모든 새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찬만한 영광을 반영해 주는 새롭고 독특한 프리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느낌과 다르지 않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위대한 유익”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최상의 가치를 보고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 위대한 가치의 또 다른 이미지요,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된다.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갈보리 길은 침울한 길이 아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매우 행복한 길이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사역과 사랑의 희생과 고난보다 무사안일의 헛된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은 기쁨을 택하지 않는 것이다.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 58:11)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주고 그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마음껏 확대시켜주는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골 1:27)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선택하셨다. 고난이 그냥 그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방편으로서 고난을 선택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도 고난을 택하도록 부르신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갈보리 길을 걸어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분의 고난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하도록 부르신다는 말이다.

열린 문(Open Doors) 선교회의 대표이며 1967년에 “하나님의 밀수꾼”(God's Smuggler)의 저자로 유명한 앤드류 형제는 1990년대 중반에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기 원하는데 문이 닫힌 곳이란 없다. 닫힌 문을 내게 보여준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지만 어떻게 나오는지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문이 열렸다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문들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초청을 받거나 붉은 양탄자로 귀빈 대접을 받는다면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저돌적이고 체험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전면적인 접근과 개척적인 정신.

우리는 어쩌면 엄청난 빈곤이나 위협적인 상황, 심지어 피의 숙청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지난 2천년 동안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힘든 시간들을 맞게 될 것이고 이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인척 했고 기독교인척 했다. 그리고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 디모데후서 3:12을 읽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많은 나라에 있는 교회는 많이 정결해 졌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준비하라는 것이다.<sup>16</sup>

##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소중함을 증명하라.

위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기독교 쾌락주의로서는 내 딴기 힘든 발걸음이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하라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 길을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묘사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다. 그분이 우리를 고난에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것은 의무에 대한 우리의 힘찬 헌신을 과시하거나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력을 드러내고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내력을 입증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그분의 약속들의 무한한 소중함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5-26) 그러므로 모세의 순종은 은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지 고난당하려는 그의 결심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다.

## 기독교 쾌락주의의 핵심

이것이 기독교 쾌락주의의 핵심이다. 고난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분의 충만한 가치를 드높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터널 끝에서 친히 밝게 빛을 발하신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는 목적과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난이 갖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유익이시다. 하나님은 유익이시다. 하나님은 유익이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 고난 받을 때에 가장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께서 온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또한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위대하신 가치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믿음의 기쁨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1. Richard Wurmbrand, *Reaching Toward the Heights* (Bartlesville, OK : Living Sacrifice Book, 1992), 뒤 표지.
2. Philip Yancey가 인용, in "Frozen Fire," *Christianity Today*, October 5, 1984, p.109.
3. Marvin Vincent, I.C.C., *Epistle to the Philippians and to Philemon* (Edinburgh : T. & T. Clark, 1897), p.78.
4. Joseph Tson, "A Theology of Martyrdom," 루마니아 선교회의 새로운 소책자, P. O. Box 527, Wheaton, IL, 60189-057, p. 4.
5. Stephen Nei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Hammondsworth, Middlesex : Penguin Books Ltd., 1964), pp. 43, 44.
6. "The Martyrdom of Polycarp"에서 인용, in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Henry Bettenson, ed.,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10.
7. "The Martyrdom of Polycarp," pp. 9, 10.
8. "The Martyrdom of Polycarp," p. 11.
9. "The Martyrdom of Polycarp," p. 12.
10. George Otis, Jr., *The Last of the Giants : Lifting the Veil on Islam and the End Times* (Grand Rapids:Chosen Books, 1991), pp. 261, 263.
11. Joseph Tson, "A Theology of Martyrdom," p. 1에서 인용.

12. John Piper의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Grand Rapids: The Baker Book House, 1993), pp. 94-96에 있는 레들을 보라. 리처드 웬브란트가 저술한 거의 모든 책을 보라, 레를 들면, *Tortured for Christ*나 *If That Were Christ, Would You Give Him Your Blanket?* 또는 *Victorious Faith*. 다른 자료들로는 Herbert Schlossberg가 저술한 *Called to Suffer, Called to Triumph*, 그리고 Leslie Lyall이 저술한 *God Reigns in China*가 있다.
13. Joseph Tson, "A Theology of Martyrdom," p. 2.
14. "A Theology of Martyrdom," p. 3.
15. Richard Wunbrand, "Preparing for the Underground Church," in *Epiphany Journal*, Vol. 5, No. 4, Summer, 1985, p. 50.
16. Brother Andrew, "God's Smuggler Confesses," *Christianity Today*, December 11, 1995, p. 45에 기록된 Michael Maudlin과의 인터뷰.



팝박의 개요 :  
연구와 발제를  
위하여



밀턴 마틴

#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

(마 16:18)

- I.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 (마 16:18; 28:18-20)
- A. 우리의 건물이 폐쇄된다고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 B. 초대교회는 성전이나 건물을 가지지 않았다.
- II. 초대교회는 심한 핍박을 당했다. 그들은 어떻게 응답하였나?
- A. 그들은 개인의 가정에서 모였다. (행 5:42)
  - B. “평신도”들이 서로의 간증을 신실하게 나누었다. (행 8:1, 4)
  - C.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증언하였다. (행 16:12, 13)
  - D.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행 11:25, 26)
  - E. 그들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 교제하였다. (행 2:46, 47)
  - F. 그들은 모든 상황과 기회 가운데 예배하였다. (행 16:23-25)
- III. 다른 방식으로 예배와 교제와 전도가 이루어졌다.
- A. 가정교회들이 확산되었다. (롬 16:3-5; 고전 16:19)
  - B. 핍박 받는 성도들과 “등록하지 않은” 교회들은 생일, 결혼식, 장례식 등을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 C. 당신은 그들이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모였을지 제안할 수 있는가?

#### IV. 사탄이 핍박 기간 동안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방법들.

A. 사탄은 교회를 대항해서 고립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B. 사탄은 교회에 대적하는 무기로서 죄책감과 상처를 사용한다.

1. 미귀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이다.
2. 사탄의 정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3. 악한 영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공격하려고 주의 깊게 기다린다.
4. 주님과 의 교제와 연합을 계속 유지하려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일 1:8-10)
5. 지적되지 않은 개인적인 잘못들은 매우 심각하게 되며 “산더미 같은” 문제들로 확대될 수 있다.
6. 사탄은 성도들이 죄 용서를 받은 후에도 “거짓된 죄책”을 계속 지니도록 최선을 다한다. (롬 5:1, 2; 8:33, 34)
7. 의심하고 “왜”라고 묻는 대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 성도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벧전 4:12-19)

I. 고난의 약속. (벧전 2:21; 4:12; 살전 3:3, 4; 행 14:22; 딤후 3:12; 막 13:9, 13; 빌 1:29)

II. 고난의 목적. (벧전 4:12; “불 시험.” 욥 23:10; 시 66:10)

A. 우리의 믿음의 증거.

B. 무엇을 고백할 때에는 그것의 실재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C.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대한 증거.

1. 무엇이 우리를 빛나가게 할 것인가?

2. 방해물의 중대함이나 크기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강도를 드러낸다.

III.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에 동참. (벧전 4:13) 성도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A. 주님은 거절 당하셨다. (요 1:10,11)

B. 주님은 미움을 받으셨다. (요 15:24; 사 53:3)

C.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편안한 처소를 떠나셨다. (요 3:16)

D. 주님에게는 자기 집이 없으셨다.

E. 주님은 심지어 세금을 내실 돈도 없으셨다. (마 17:27)

F. 주님은 침대를 가지지 않으셨다.

G. 거짓된 고소를 받으셨을 때 아무도 주님을 변호하지 않았다. (벧전 2:22, 23)

H. 주님에게는 무덤이 없으셨다. (사 53:9)

I. 주님은 가난하셨다.

J. 빌립보서 3:10; 베드로전서 2:21; 4:1; 갈라디아서 2:20; 6:12, 17; 사도행전 5:41; 히브리서 12:2; 데살로니가전서 2:2.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히12:2)

IV. 고난 속에 있는, 또는 고난을 통한 능력. (벧전 4:14)

성령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 위에 임하신다. 구약성경에서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 구름은 주님의 영광으로 알려졌다.(왕상 8:10, 11)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이와 유사한 영광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도에게 임한다. 성령님은 다음과 같은 사역을 위해 오신다. 채우시고, 덮으시고, 입히시고, 품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중보하시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신다. 이 영광은 스테반에게서 볼 수 있었다.(행 6:5-8; 7:55, 60)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광채를 발한다.(고후 12:9, 10)

V. 고난 속에 있는 위험. (벧전 4:14-16)

- A.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자신의 잘못과 우둔함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다르다.
- B. 수치. (히2:11)
- C. 기쁨과 감사 대신 쓴 마음. (출 15:23, 24; 16:2; 살전 5:16-18)

VI. 고난을 통한 정화. (벧전 1:7; 4:2)

- A. 고난은 "찌꺼기"를 정화하고 제거하고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B. 고난 그 자체는 정화하거나 제거할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

의 은혜만이 정제와 정화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할 수 있다.

1. 고난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다.
  2. 고난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 C.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고후 12:9, 10)
- D.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자. (벧전 4:19; 행 7:59; 눅 23:46)

##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 차지하는 부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다.(욥 5:6, 7)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역시 정상적이다.(딤후 3:12; 행 14:22; 벧전 2:21)

핍박에는 단계가 있다. 억압, 모욕, 차별, 위협, 물질적 소유물의 상실, 또는 신체적인 폭력.

### I. 일반적인 오해들.

- A. 고난은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한 형벌이다. (벧전 4:19; 3:14; 4:16)
- B. 우리가 절대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벧전 1:6)

- C. 오직 성도들만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 (창3:16-19)
- D. 고난에 대한 낭만적이면서도 불건전한 생각.
- E. 고난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

## II.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 A. 성도는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 (요 15:18-21 ; 17:14 ; 요일 3:13)
- B.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벧전 4:16 ; 2:21)
- C.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겪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벧전 1:6,7 ; 고후 12:7-10)
- D.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마 5:10 ; 벧전 4:15)
- E. 하나님은 의로운 고난에 대해 복을 주신다. (마 5:10-12 ; 눅 6:22,23)
- F.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 (롬 8:16-18 ; 골 3:1-3)
- G.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벧전 4:16 ; 히 13:12,13)
- H.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 (벧전 2:19-25)
- I.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처럼 응답해야 한다. (마 5:38-48 ; 롬 12:14, 17-21 ; 벧전 2:21-23)
- J.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요 16:33)

## III. 고난을 위해 준비하라.

- A. 고난이 정상적인 것임을 리해하라. (벧전 4:12; 빌 1:29)
- B.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라. (몬 3:10 ; 롬 6:3-5 ; 요 8:31,32)
- C.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요 15:4)

D. 매일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라. (엡 5:18 ; 4:30)

E. 하나님의 뜻 안에 안식하라. (엡 5:17 ; 히 4:1, 9-11)

F. 당신과 당신의 형제가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을 격려하라. (골 3:16, 17 ; 엡 5:19-21)

## 교회를 향해 공격이 들어오는 유형들

I. 핍박의 초점. (요 15:18-21 ; 골 1:24-27)

그 공격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주님께 대한 것이다.

II. 이긴 자의 언어.

A. 정복자, 즉 “이긴 자”의 말. (계 2:7, 11, 17, 26 ; 3:5, 12, 21)

B. 승리의 비밀. (계 12:11)

1. “어린 양의 피로” (계 12:11 상) (피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보라.)

a. 하나님과 화평.

b. 우리의 양심과 화평.

c. 삶 속의 능력.

d. 이 무기를 잃어버릴 때

1)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피가 없다.



- 2) 해방주의 신학에 대하여—십자가가 없다.
  - 3) 영적 부담이 없는 설교에 대하여—능력이 없다.
2. “자기의 증거 히는 말을 인하여.” (계 12:11 중)
- a. 사탄은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증거와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승리를 앗아가려고 노력한다.
  - b. “내면의 적” 또한 존재한다.
    - 1) 회중 가운데 있는 분열.
    - 2) 두려움.
    - 3) 불신앙.
    - 4) 사랑의 결핍.
    - 5) 사람과 영혼에 초점을 두기보다 다른 문제들로 벗어남.
  - c. 식구들에 대한 돌봄의 부족.
  - b.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과 프로젝트.
  - e.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
3.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하)
- a. 그들 사전에는 타협이란 없다.
  - b.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사례들.
  - c.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야망이나 신분이나 권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 III. 일반적인 징조.

핍박은 공산주의 국가이든지 종교적인, 아니면 다른 독재 정권에서든지 일종의 담요같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징조들이 몇 가지 있다.

#### A. 전도의 제한.

1. 성도들에게 여행의 허가나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2. 모든 기독교 프로그램이 라디오나 TV에서 제거된다.
3. 교회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모임이 금지된다.
4.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모든 예배마다 정부의 감시자나 스파이가 들어온다.

#### B. 성경과 기독교 문서의 반입이 금지된다.

1. 그러한 인쇄물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성경이 음란서적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 C. 외국 선교사들이 나라에서 추방된다.

1. 성직을 국내 현지인들에게만 제한하는 법에 의해서.
2.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한된 기간 동안 여행자로 방문하거나 지정된 지역에만 여행할 수 있다.
3.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폭력에 의해서.

#### D. 기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심한 차별을 당한다.

1. 우편물은 검열을 받고 목사들은 설교할 수 있는 주제를

제한 당한다.

- a.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면 교회의 면세 특혜를 빼앗는다.
  - b. 정부에서 목사들의 자녀들을 체포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한다.
2. 목사들은 사역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붓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 a. “그들은 사회의 생산력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두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 b.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모든 힘과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에 배치될지도 모른다.
3. 목사들은 성도들을 방문하거나 전도지를 배부할 수 없다.
4. 교회는 타자기나 컴퓨터나 프린터를 소유할 수 없다.
5. 목사들은 공포 전술로 조종을 당하기도 한다.
- a. 그들은 심문을 받기 위해 소환을 당하기도 한다.
  - b. 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화” 학습에 억지로 참여하기도 한다.
  - c. 어떤 “매혹적인” 제안들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압력을 가하거나 유혹한다.
    - 1) 이것은 어떤 특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2) 이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기독교인들만 가는 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d. 그들은 예고도 없이 가택수색을 당하기도 한다.
- e. 예배 중에 여러 정부 관리들이 급습하기도 한다.
- 6. 목사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하도록 배정을 받기도 한다.
  - a. 그 목적은 목사들을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함이다.
  - b. 그들은 매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직업을 받기도 한다.
- 7. 목사들은 체포되어 “재교육”을 받는다.
  - a. 여기에는 고문이 포함될 수도 있다.
  - b.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기도 한다.
  - c. 그들에 대해서 거짓 기소나 부정한 증언이 주어지기도 한다.

E. 교회는 등록하도록 강요받는다.

- 1.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에 의해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모든 설교는 전파되기 전에 문장으로 기록되어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검열을 받아야 한다.
- 3. 목사들이 설교하도록 허락 받기 전에 서명해야 한다. (례: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F. 교단들이 서로 연합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 1. 교단들의 수는 제한된다.
- 2. 모든 교단이 국내교회연합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 3. 전적으로 민족적인 교회가 “창조” 된다.

G.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제한된다.

1. 특정 그룹의 청소년들만 대학에 다닐 수 있다.
2. 기독교인은 의사, 변호사, 교수, 또는 사회사업가가 될 수 없다.
3. 기독교인은 직업이나 취업을 선택할 수 없다.

H. 18세 미만의 종교교육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

1. 가정교육은 금지된다.
2. 젊은 기독교인들은 무신론, 진화론, 성교육, 그리고 “대안 인생”에 관한 “특별한 교육”을 강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3. 법을 어긴 부모는 자녀들을 빼앗기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I. 기독교인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가족 중 한 명이 체포되면 그들은 어떤 “권리”나 “특권”을 상실한다.

1. 여기에는 치료, 주거, 음식 등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2. 가족들은 다른 성도들이나 친족들과의 교제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서로 격리되어 있다.

J. 교회가 폐쇄된다.

1. 건물들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다.
2. 성도들은 먼 곳이나 다른 곳으로 “임명” 받아서 격리된다.
3.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IV.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 A. 어떤 리유에서인지 그들은 면제되었다고 생각한다.
- B. “휴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도피의 리유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으로부터 면제해 주실 것이라고 믿을 아무런 권한도 우리에게 없다.

V. 성도들에게 교훈을 제공하라.

- A. 우리의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  
(딤후 2:1-4; 롬 13:1-7)
- B.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긴 자”가 될 것을 결심하라. (계 12:11)

## 핍박이 나타나는 몇 가지 유형들

(벧전 2:19-24)

고난은 모든 참된 성도들의 삶의 일부이다. 성도가 고통을 경험하는 방법들 중에는 적어도 33가지가 존재한다.

1. 의를 위하여. (마 5:10; 벧전 3:14)
2. 험담(악한 말)에 의해서. (시 31:13; 욥 19:18; 55:12-14; 눅 6:22)
3. 부끄러움. 공개적인 모욕이나 불명예나 수치.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사생아로 태어나신 것처럼 또한, 십자가에서 그분의 벗은 몸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신 것처럼. (히 13:13; 11:26)

4. 거짓되게 송사를 당함. (시 35:11 ; 27:12 ; 마 5:11 ; 눅 23:2, 5, 10 ; 막 14:55-60 ; 행 6:13 ; 16:19-23 ; 26:2, 7)
5. 송사할 기회를 찾으면서 거짓말, 속임수, 책략을 통해 유혹함. (단 6:4, 5 ; 눅 11:54 ; 마 10:16-18)
6. 음모의 표적이 됨. (삼하 15:12 ; 창 37:18 ; 고후 11:32 ; 행 9:23)
7. 조롱을 당함. (시 42:3)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빈정대를 당하고, 놀림을 당함. (욥 12:4 ; 마 27:29, 31, 41 ; 행 2:13 ; 17:18, 32 ; 히 11:36)
8. 배반과 배신을 당함. (마 24:10 ; 눅 21:16 ; 시 41:9)
9. 경멸을 당함. 멸시를 받고, 증오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함부로 대함을 받음. (고전 1:28 ; 4:10c)
10.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음. (마 10:21, 34-36 ; 미 7:6 ; 눅 21:16)
11.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음. (눅 21:17 ; 마 10:22 ; 욥 19:19)
12. 성품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증상, 악한 소문. (시 31:13 ; 욥 19:19 ; 뱀전 2:12 ; 고전 4:13)
13. 자기 백성들로부터 두려움을 받음. (행 9:26)
14. 특수한 시련을 당함. (고전 4:9-14 ; 고후 11:23-28)
15. 투옥 당함. (눅 21:12 ; 행 4:3 ; 5:18 ; 12:4 ; 16:24 ; 고후 6:5 ; 11:23c ; 히 11:36b)
16. 매를 맞음. (행 5:40 ; 16:23 ; 고후 6:5 ; 11:24 ; 마 10:17)
17. 반박을 당함. (행 13:45)
18. 충동을 당함. (행 6:12 ; 13:50 ; 14:2, 19 ; 19:23, 25, 26, 29 ; 21:27)
19. 당국자들 앞에서 고소를 당함. (행 18:12 ; 마 10:17, 18)

20. 위협을 당함. (행 4:18, 21 ; 5:40)
21. 돌에 맞음. (행 7:58, 59 ; 14:19 ; 고후 11:25 ; 히 11:37)
22. 시련을 당함. (딤후 3:11 ; 시 34:19)
23. 추방을 당함. (행 13:50 ; 요 16:2a)
24. 극도의 피로. (고후 11:27)
25. 굶주림과 갈증. (고후 11:27 ; 고전 4:11)
26. 구경거리가 됨. (고전 4:9 ; 행 9:16 ; 20:23 ; 21:11 ; 히 10:33a)
27. 특체적인 궁핍을 당함. (고전 4:11 ; 고후 6:4 ; 빌 4:12 ; 히 11:37)
28. 순교. (눅 21:16 ; 행 7:59 ; 12:1 ; 요 16:2)
29. 환난. (딤후 1:8 ; 4:5 ; 마 24:9 ; 시 34:19 ; 고후 4:17 ; 6:4 ; 히 10:32, 33 ; 11:25, 37 ; 골 1:24 ; 살전 1:6 ; 3:7 ; 약 5:10)
30. 가난. (고후 6:10 ; 빌 4:12)
31. 재산과 물건을 빼앗김. (히 10:34b)

## 핍박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I. 신약성경에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선별하여 제자 삼으라.  
(행 14:21, 22 ; 딤후 1:5)
  - A.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직책에 대해 자만하지 않았다. (딤후 3:6 ; 벘전 5:3)
  - B. 지도자들은 참된 종들이었다. (벘전 5:2 ; 요 13:14-17)



- C.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
- D. 지도자들은 정직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었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았다.
- E. 지도자들은 끝까지 진실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용기와 씩씩함을 소유했다.

II. 제자 삼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딤후 2:2)

- A. 제자를 삼을 만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일정 수 뽑으라. (눅 6:12)
- B. 당신의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라. (막 3:14)
- C. 좋은 모범이 됨으로써 그들을 가르치라. (고전 4:15, 16; 빌 4:9; 요 13:14-17)
- D. 간단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라. (행 20:26, 27)
- E. 과제를 면밀하게 검사하라.
- F. 그들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성품을 계발하도록 도우라. (딤후 4:12-16)
- G.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엡 1:16; 빌 1:3-6; 골 1:3)

III.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해야 한다.

- A. 식구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았는지 확인하라. (골 1:9-13; 고후 13:5; 롬 8:1-14)
- B. 앞으로 닥칠 먹구름에 대해 자녀들을 준비하라. (신 6:4-9, 20-

25; 11:18-21; 30:2; 잠 6:20-24; 수 24:14, 15)

C. 식구들이 항상 읽을 수 있는 성경과 기독교 자료를 모으라.

D. 모든 쓴 마음을 경계하라. (롬 12:14, 17, 19, 21; 마 5:38-48)

E.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마 5:44; 눅 23:34; 행 7:60; 고전 4:11-13;  
벧전 2:23)

F. 당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 5:44)

##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 9:4)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무관하게 아직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폐쇄적인” 나라들이 40개가 넘는다. 기타 다른 국가들도 종교의 자유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은 어떠한가? 예레미야 8:20은 그들의 통곡과 갈등을 전해 준다. 우리는 아직 때가 낮일 때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요 9:4)

I.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라.

A. “밤”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장소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곳은 “밤”과 마찬가지로

지이다.(어둠-빛의 부재)

1. 사람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밤”이다.  
(막 5:17)
2. 종교가 격해져서 광적인 수준에 이르러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면 “밤”이다.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마 27:20-25)
3. 성도의 삶에 죄가 들어와 고백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을 때 이것은 “밤”이다. (요일 1:5,6)
4.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밤”이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마 24:30,31)

B. “일”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1.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 9:4)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마 5:15, 16)

II.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은 어떻게 오는가?

- A.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에 어둠을 가져오려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들에 어둠을 가져오려고 일한다.(엡 5:11; 6:12)  
그들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세속적인 인본주의, 뉴에이지, 정치 세력에 대한 숭배, 거짓된 사교들, 도덕의 부재와 타락.

B.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사회 속에 어둠의 씨앗을 뿌린다. (마 13:24-28)

### III.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왜 오는 것일까?

A. 낮이 지난 후에 밤이 오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다.

B. 우리는 광활한 죄악의 들에서 살고 있으며 성경은 악이 점점 더 흉악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딤후 3:13)

C. 희미한 빛과 차갑고 약해진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마 6:22, 23 ; 5:13-15 ; 계 3:15, 16)

D. 영적 흑암의 시기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잘못이 잘못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자의적이고 상황적인 윤리가 지배하는 때이다.) (딤후 3:1-9 ; 4:3, 4)

### IV.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낮 동안의 빛을 최대한 활용하라.

1. 문이 열려 있든지 닫혀 있든지 관계없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여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2. 세상의 어느 지역이 추수를 위해 무르익었는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3. “개방적이고 관대한”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레를 들

면 바울은 도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그들의 이해위에 사역을 세워나갔다.

(행 13:5, 14, 15 ; 17:1-3 ; 18:2, 4 ; 19:8)

4. 새로운 선교지역에 사교들이나 “-주의”(ism)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라.

B. 순수한 복음을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종교, 또는 단순한 교회 건물과 뒤바꾸지 말라.

C. 지금이 행동할 때이다. (아프리카 속담 “햇빛이 뜨거울 때 뛰어라.”)

1.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자. (사 55:6, 7 ; 시 32:6, 7)

2.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 (사 1:16, 17 ; 렘 4:14 ; 롬 12:9 ; 요 17:17)

3. 성령 안에서 행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라. (롬 13:13 ; 갈 5:25 ; 엡 4:1 ; 5:15, 16 ; 골 1:10 ; 빌 2:14-16)

## 시련을 승리로 바꾸라.

(약 1:2-12)

인기 있는 설교와 가르침은 성도의 삶에 문제들이 없다고 선포한다.

하지만 이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역”의 주

체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롬 8:28) 축복은 저주의 넘마조각으로 포장될 수도 있다. 슬픔은 참된 기쁨이 담긴 변장일 수도 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성취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시거나 경험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의도하시며 그것이 죄나 책망 때문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시련과 고난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점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고 없는가가 아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시련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1. 하나님의 방법—선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성취한다.
2. 세상의 방법—욕심에 찬 응답으로서 분노와 쓴 마음을 품거나 요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황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인식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

1.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2. 그것들은 선하다.

하나님은 아래의 일들을 원하신다.

1. 시련이 승리로 바뀌는 것.
2. 피해자가 승리자로 변하는 것.
3.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
4.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
5. 전투가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

야고보서 1:2 - 여기라.

1:3 - 알라.

1:4,9 - 하게 하라.

1:5,6 - 구하라.

시련을 이기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들

1. 기쁜 자세 (2절)
2. 목적에 대한 이해 (3절)
3. 순종하는 의지 (4절)
4. 믿고자 하는 마음 (6-8절)

I.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쁜 자세. (약 1:2)

- A. 자세는 결과를 결정한다. 태도는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 B. 시련은 예상되어야 한다. (2절; 벧전 4:12)
- C.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2절) 다양하고 다채롭다. (례를 들면 누비 질 하는 사람이 옷감을 함께 바느질해서 담요를 만드는 것처럼 뒤에서 보면 오직 빛 바랜 색깔들과

보이지도 않는 거친 면들뿐이다. 하지만 정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모양과 디자인과 아름다움과 목적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경험과 사건들을 함께 섞고 짜깁기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습되고 자라게 하신다.

D. 가치가 평가를 결정한다.

1. 만약 성품보다 편안함으로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시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2. 만약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시련을 겪는 동안에 당신은 비참할 것이다.
3. 만약 미래보다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시련은 개선(betterment)보다는 개탄(bitterness)을 초래할 것이다.

II. 알라. 목적에 대한 리해. (약 1:3)

A. 믿음은 항상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표시일지도 모른다.

B.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고 증진시키시려고 그를 시험하셨다.

1.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시려고 시험하신다.
2. 사탄은 최악의 것을 드러내려고 시험하고 유혹한다.

C. 시련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롬 8:28)



D. 시련은 올바르게 사용만 하면 우리를 성숙하도록 돕니다. (롬 5:3,4)

1. 목적, 인내, 준비, 참음, 능력
2. 인내는 상황들에 대한 하나의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개념이 아니다. 인내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용감하게 참는 것이다.
3. 조바심과 불신은 항상 함께 간다. (히6:12; 10:36; 사 28:16)

### III. 하게 하라. 순종하는 의지. (약1:4)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우리의 의지를 순종하지 않은 채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버릇없고 냄새 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어린이처럼 행동할 것이다.

### IV. 구하라. 믿고자 하는 마음. (약1:5,6)

- A.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지혜이다. (왜 은혜나 능력이 아닐까?)
- B. 지식은 정보이다. 지혜는 적용된 지식이다.
- C.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 D.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는 목적에서 상황들을 허락하신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물을 사용한다.

## 의심과 걱정을 물리치라

(빌 4:7; 갈 3:23; 벨전 1:5)

1.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 넘쳐흐르는 분수와 샘이 되게 하라. (빌 4:7)
2. 모든 의심과 걱정을 내어 버리라. (빌 4:6; 약 4:7)
3. 당신의 생각을 지키라. 순결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라. (빌 4:8)
4. 당신의 마음과 눈의 초점을 주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두라. (사 26:3; 골 3:1-3; 마 6:33)
5. 모든 초자연적인 전쟁에서 초자연적인 무기들을 사용하라. (고후 10:4-6)
6.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엡 6:10-18)
7. 믿음 가운데 행하라! (마 6:25-34; 7:7-11; 17:20; 21:22; 막 11:22-24)
8. 성령 안에서 행하라. (갈 5:16-26; 롬 6:14-23; 8:1-13)
9. 오직 하나님에게만 당신의 확신을 두라. (히 3:6, 12-14; 6:11, 12; 10:19-23, 35-39)
10.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 (벨전 5:7)

## 고난 받는 성도를 위한 상급

(벨전 4:13)

1. 천국의 영광. (고후 4:17, 18; 벨전 5:1, 10, 11)

2. 영원한 위로 (고후 1:7; 롬8:17)
3. 그리스도께서 알려지신다. (고후 4:11)
4.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공급된다. (고후 4:12)
5.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고후 4:15)
6. 하나님께서 의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보장. (살후 1:4, 5)
7.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딤후 2:12a)
8. 영광의 성령께서 임하신다. (벧전 4:14)
9.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벧전 4:16)
10. 기뻐할 이유가 생긴다. (벧전 4:13, 14)

##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일곱 가지 사례

(벧전 2:21-24; 3:14-17)

1. 고난. (벧전 2:21; 마 16:24; 요일 2:6)
2. 무죄. (벧전 2:22; 사 53:9)
3. 간계가 없으심 (벧전 2:22); 속임수.
4.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사랑하심. (벧전 2:23; 사 53:7; 롬 5:3; 12:14; 마 5:44-48; 약 1:2-4)
5. 위협을 받으실 때 인내하심. (벧전 2:23; 롬 12:12; 눅 21:19)
6. 하나님께 대한 순종. (벧전 2:23; 4:19; 눅 23:46) 그분의 뜻에 헌신하고 그분을 신뢰함.

7. 의로우심(벧전 2:24); 공의롭고,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으심.

핍박을 위한 준비에 대한 몇 가지 교훈  
종과 노예들을 향한 조언  
주인과 일꾼들에 대한 성경적인 권면

엡 6:5-8; 골 3:22-25

1.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라. (엡 6:5; 골 3:22)
2. 책임감을 가지라. 두려움과 떨림. (엡 6:5; 골 3:22)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 즐거운 일만 선택하지 말고 불쾌한 일도 거절 하지 말라.)
3. 보이기 위해서 섬기지 말라. (엡 6:6a; 골 3:22c)
4.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엡 6:6c; 골 3:22c)
5. 마음으로부터 행하라. (엡 6:6d; 골 3:22d)
6. 선한 뜻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라. (엡 6:7)
7. 사람들에게 인정은 못 받더라도 주님께 인정은 받게 될 것이다. (엡 6:8; 골 3:24, 25)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갈 6:7-9)

딤후 2:9, 10

1.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라. (딤후 2:9a) 모든 일에 주인을 기쁘게 하라. (딤후 2:9b)

2. 거스려 말하지 말라.(딤후 2:9c) 반박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
3. 흠치지 말라.(딤후 2:10) 도둑질 하거나 속여 빼앗지 말라. 시간이 나 기술을 빼앗지 말라.(눅 16:10) 충성을 다하라.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라. (눅 16:10)

### 벧전 2:18-20

1. 순복하라.(벧전 2:18a)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책임을 다하고 대답을 주며 의지하고 의무를 수행하고 통제를 받고 지도를 받으라.
2. 모든 두려워함으로 하라.(벧전 2:18b) 다른 사람의 신분을 존중해 주고 인정하라.
3.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라.(벧전 2:19, 20) 하지만 고의적인 순교나 고난은 피하라.
4.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벧전 2:21-23)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영적인 특징

(엡 6:12;고후 10:3,4)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롬 8:32, 37 ;

고전 15:57)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과 패전과 후퇴와 단  
힌 문과 영적인 패배, 그리고 죽음이 있다. 하지만 아래의 몇 가지  
원리들을 마음에 기억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다.

I.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며 통치하신다. (사 40:15 ; 단 2:20-  
22 ; 4:35 ; 욥 12:14-23 ; 시 75:6, 7 ; 76:10 ; 렘 27:5-7 ; 잠 1:24-31 ; 히 13:8)

II.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고후 1:20 ; 벧  
후 1:4)

성경에는 7천 개 이상의 약속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모든 필요마  
다 하나씩 주어진 다. (수 21:45 ; 23:14 ; 왕상 8:56 ; 히 6:13-18 ; 행 7:5 ;  
벧후 3:9. 연관된 약속들 히 2:3 ; 사 30:18 ; 시 34:8 ; 잠 16:20 ; 렘 17:7, 8)

III. 주님의 명령 때문에 승리는 확실하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그분은 이를 완성하고 끝까  
지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고후 9:8 ; 12:9 ; 엡 3:20)  
순종적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하셨다.

A. 그분의 능력과 권세 (마 28:18)

B. 그분의 임재 (마 28:20)

C. 그분의 공급 (빌 4:13-19)

IV. 승리는 또한 주님의 재림에 기초한다. (살후 2:8)

그의 백성과 함께 영광중에. (계 1:5-8 ; 19:11-16 ; 빌 2:9-11 ; 엡 1:19-

## 그런 일은 여기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 노아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 (마 24:37-39)
2.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나? (마 16:21, 22)
3.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 (마 16:23)
4. 다른 경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마 26:31)
5.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마 26:33-35)
6. 이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 26:69-75)
7. 베드로는 왜 그의 믿음을 부인했는가?
8. 베드로의 경우는 독특한 상황이었는가?
9. 사람들이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다른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의 세상 어느 곳에서:
10. 데살로니가전서 5:3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안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11. 베드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의 삶 속에서 배워야

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마 14:29-31)

12. 상황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맡겼던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 A.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나? (창 13:10, 11)
  - B. 그 결과는 어떠했나? (창 19:15-26)
  - C. 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가?
  - D.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 19:14)
13.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속의 부자에게 어떤 일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는가? (눅 12:16-21)
14. 주님은 재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눅 21:8-28)

## 핍박의 성경적인 원리

1. 요한복음 15:18-21에 따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행 14:22)
3. 핍박은 실제로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 (행 9:4, 5)
4. 디모데후서 3:12에 의하면 핍박은 일어날 것 같으나, 같지 않은가, 아니면 필연적인가?
5.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몇 가지 이유를 열거하



라. (마 13:20, 21)

6. 마태복음 16:24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세 가지를 기대하시는가?
7. 핍박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가? (마 5:10-12)
8. 하나님의 약속들은 거의 언제나 하나의 조건을 수반한다.  
례: 요한계시록 3:20  
조건은 무엇인가?  
약속은 무엇인가?
9. 적어도 세 가지 유사한 본문들을 열거하라.
10. 신명기 11:22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어떤 조건이 선행하는가?
11. 다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언제 의지할 수 있는가?  
A. 평화 (사 26:3)  
B. 정치적인 안정 (딤후 2:1-3)
12.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A. 마태복음 5:44  
B. 누가복음 23:34
13.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 때문에 얻어맞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나? (행 5:41)
14.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드러졌나? (행 4:23-30)
15. 로마서 8:35-39에서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 언급되었는가?

16. 성경은 로마서 8:31-39에서 승리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17.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구절들을 적어도 세 가지 열거하라.
18. 비록 분쟁과 고난이 늘어날 것이지만 승리는 확실하다. 그 이유는?  
이것을 입증할 구절이 있는가?
19.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은?  
(엡 6:10-18)
20. 전신갑주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 부족한가?
21. 당신은 변화를 가져오기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22. 요한계시록 12:11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